

하나님 찬양 음악으로 사람 살리자!

CT, 독일 제3제국 당시 2명의 음악가 통해 음악이 가진 힘 소개

"음악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음악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고 유명한 크리스천 싱어송라이터, 보노(Bono, 록밴드 U2의 리더싱어)는 말한다. 그 누구도 보노가 말하는 음악이 가진 힘에 대해 논쟁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는 노래를 통한 기부와 자선 활동, 환경 문제에 등에 대한 사회운동으로도 유명하다. 바로 그의 공연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해서 가까이 자선활동에 참여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동참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결혼 행진곡으로 너무나 유명한 '혼례의 합창'과 '탄호이저', '니벨룽의 반지', '순례자의 합창' 등으로 유명한 독일의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는 자신의 음악이 유대인을 죽이는데 악용됐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식 통치에 열광했다.

크리스천투데이(CT)는 최근 BBC와 PBS에 소개된 음악 다큐멘터리 특집물을 통해 음악이 가진 힘, 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음악의 힘을 독일 제 3제국의 정치적 부상과 맞물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Music: To Kill and To Save: Two new documentaries explore the role of music during the rise of the Third Reich).

바그너는 뛰어난 천재 음악가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음악가로 평가된다. 그는 유대인을 특히 싫어했고 독일인 우월주의를 강조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서 히틀러에게 잘 이(악)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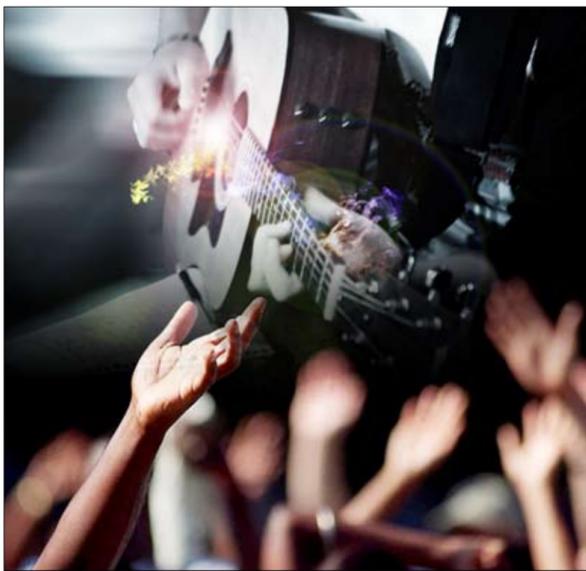
바그너가 유대인을 싫어한 이유는 무명시절 자신의 곡을 바꾸지 않고 병정하게 내뿜던 유대인 음악가 마이아 베어에 대한 미움과 유부녀와 사랑에 빠졌다가 죽음직전까지 가서야 포기한 유대인 유부녀와의 실패한 사랑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이다.

니체 역시 젊은 시절 바그너에 열광했다. 그러나 니체는 훗날 바그너의 음악은 '무대 효과를 통해 사람들을 최면 상태에 빠뜨리고 세뇌한다'고 비판했다. 니체의 이 같은 비판적 예언은 히틀러를 통해 비극적으로 적중한다.

BBC를 통해 방영된 음악다큐멘터리(Wagner & Me)는 바그너의 음악이 어떻게 해서 히틀러 정권에서 악용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히틀러는 바그너의 '로엔그린'을 관람한 후 그를 좋아하게 된다. 독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한껏 치켜세워주는 음악이기 때문이다. 이후 히틀러는 독일인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독일인 우월주의를 세뇌하고자 바그너의 음악을 철저히 이용했다.

나치의 집회는 매년 '마이스터징거' 서곡 연주로 문을 열었으며 교향곡 '지그프리트 목가'를 제2당가로 사용할 정도였다. 또 가두행진



음악은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 달라진다. 기독교인에게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된다.

시에는 '순례자의 합창'을 틀었는데 유대인들을 가슴으로 몰아넣으면서도 '순례자의 합창'을 연주하게 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바그너의 음악을 들을 수 없다. 바그너의 음악을 통해, 과거의 악몽이 재현되기 때문이다.

다큐는 후반부로 가면서, 피할 수 없는 주제인 히틀러와 연관성에 주목한다. 정치에 발을 담그기 전부터 히틀러는 바그너의 열렬한 팬이었고, 바그너의 사위 등 자손들과 알고 지냈다. 게다가 권력을 잡은 후엔 나치당 연설 전후로 바그

너를 연주했고, 밤엔 축하공연으로 그의 오페라를 대중들에게 보여주면서 특유의 웅장하고 직설적인 그의 음악을 프로파간다에 이용했다. 예술을 정치로, 그 안의 선악이분법으로 현실을 보게 하려는 의도도



2면 신앙이 사람을 더욱 사람답게 만든다!



3면 종교탄압 속 '지하교회' 계속 성장!



7면 종교 다원주의를 경계하라 유상열 목사(리빙스턴교회 담임)



13면 방지일 칼럼 "본대로 들은 대로"

신뢰로 인도할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십저널, 달라스신학교 앤드류 사이델의 성경적 리더십 소개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천의 진정한 삶의 모델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통찰력 있는 리더 그룹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 같은 미숙한 남자와 여자를 취하시어 독특한 은사와 능력을 더하시고,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리더로 세워 가신다.

오늘 우리는 영적 항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달라스신학교의 앤드류 사이델 박사는 이 시대를 이끌어 갈 크리스천 지도자들의 손에, 영적 나침반을 소개해준다. 이 내용은 이미 오랫동안 달라스신학교의 크리스천리더십센터에서 사용돼 오면서 실제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사이델 박사는 성경적 원리와 리더십 발전의 선두에 있는 작가들의 말을 인용, 현대적인 실례들에 초점을 맞춘 리더십 가이드를 말해준다.

하나님을 향한 성품, 비전, 관계, 기술의 포괄적 코스 내 자원 포기하고 하나님 더 신뢰할 때 온전케 하심

앤드류 사이델은 예수님을 모델로 한 성품, 비전, 관계, 기술의 성경적인 리더십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사이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당신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당신을 어떻게 성장시키셨는지, 그리고 사역을 위해 어떻게 지속적으로 빛어 가시느지를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포괄적인 코스로 리더십을 말한다.

당신의 사고와 인지를 자극하고 증대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확신을 발전시키며, 성기는 리더로서 당신의 성장을 장려하기를 바라고 있다. 사이델 박사는 당신과 당신의 사역 팀이 다음 영역에서 준비되도록 돕는다:

-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 ▲은사와 강점 ▲기질 ▲삶과 사역을 위한 기질 ▲가치와 목표 ▲그 외
- 리더십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 중 어떤 것은 단순하고 어떤 것은 복잡하다. 어떤 것은 만족과 성취를 주고 어떤 것은 고통과 혼란을 일으킨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있는 그대로를 택하시고, 독특한 은사와 능력을 더하신 후에 그의 인생의 경험들과 관계들을 성숙시키고, 비전을 세우고, 기술들을 연마하는 것들을 통해 리더로 만드신다. 당신은 모세나, 다윗, 예레미야, 느헤미야, 그리고 사도들과 같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삶의 과정을 따를 수도 있다.

(9면으로 계속)

새로 시작하는 새장로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사명선언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가 되어,
온 누리에 복음을 전하는, 섬김과 섬의 공동체

창립 감사 예배

- 일시: 2013년 9월 8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새장로교회 본당 (970 N.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9)

초청: 원영호목사와 새장로교회 교인 일동
(문의 연락처: 213-700-4474)



새 장 로 교 회
The New Presbyterian Church

* 창립감사예배에 화환은 사양합니다. 그 대신 창립감사예배에 드려질 특별선교헌금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payable to 'The New PC'). 예배후 저녁식사가 준비됩니다.



시론

가을!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해줄 감사!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한국전 정전60주년 기념일을 일주일 여 앞둔 지난 7월 18일 오전 11시, 섭씨 38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현운종(74)·조미나 부부가 땀을 뻘뻘 흘리며 화환을 들고 워싱턴 참전기념공원에 나타났습니다. 화환엔 '영원히 당신들을 기억합니다'란 영문문구와 함께 '서울대 상대 17회 일동'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화환에 담긴 사연은 이렇습니다. 2006년 여름 배창모 전 한국증권협회 회장은 남미로 크루즈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칠레로 가는 배 안에서 그는 한 미국인 노신사를 만났습니다. 배 전 좌창

에게 대뜸 "코리아"냐고 물은 이 노신사는 그렇다고 대답하자 "왜 한국인들이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 하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알고 보니 노인은 1950년 12월 흥남에서 부산까지 피란민 10만 명을 대피시켜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리는 흥남부두 피란민 철수작전에 참여했던 미 해병대 참전용사였습니다. 배 전 좌창은 귀국하자마자 동기회 멤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곤 동기모임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워싱턴 참전기념공원에 매주 화환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때마다 배 전 좌창의 울산고 동창인 현운종씨가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에서 화환을 운영하고 있어 화환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9년 8월에 시작된 화환 릴레이는 올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었고, 지난 7월 18일의 화환이 170회째였다고 합니다(뉴욕중앙일보 2013.7.23참조)

제가 담임하고 있는 뉴욕 롱아일랜드 참사랑교회에서는 부임한 첫해부터 매해 9월, 10월 중에 지역 타민족 주민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음식을 체험하는 오픈커뮤니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6일에 5회째를 맞습니다. 이때 특정한 2그룹은 반드시 초청합니다. 하나는 한국인 입양아들과 그들의 가족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한민족의 피를 나눈 입양아들을 어찌나 그렇게 소중하고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대해 주는 입양아 가족들을 바라보며 참 깊은 감동을 갖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6.25참전군인들과 가족들입니다. 5번째가 되니 의례 기억하시고 함께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는 어른들입니다. 무슨 몇 주년 행사에 한 번씩 초청하지 않고 매해마다 지극한 정성으로 맞아준다고 기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마음 아픈 하나는 해마다 오시던 어른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 여쭙보면 하나님나라로 이사하셨다는 대답을 들곤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어른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와 더불어 살아계시는 동안이라도 더 잘 모셔야겠다고 교인들과 더불어 마음먹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이민 온 첫 지역이 코네티컷 웨어필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뉴헤이븐 예일대학까지가 30분정도여서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을 모시고 자주 가곤했습니다. 예일대학 중간에 있는 한 큰 건물에 들어가면 그 로비의 벽에는 예일대학과 동문들 가운데 전사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전사한 전쟁과 장소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남북전쟁, 1차 2차 세계대전, 베트남 등등 그 가운데 영어로 쓰여진 한국전쟁, 낙동강, 소양강 등등의 이름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명문종의 명문출신들이 그들이 생전 보도 듣지도 못한 생소한 나라 한국에 와서 그들의 젊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이름 앞에 설 때마다 경외감이 마음에 가득차곤 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한 국회의원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저는 반공주의자도 골통 보수주의자도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이념과 사상의 갈등과 대립을 떠나 역사적 현존을 기억하고 그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만일 6.25참전용사들이 없었다면 오늘 북한이 겪고 있는 기아, 빈곤, 인권 등등의 모든 문제들이 북한과 북한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와 나의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감사치 아니하며"입니다(딤후3:1-4).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감사한 마음을 전해줄래야 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6.25참전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내 인생의 뒤안길, 이만생활 안에 정말 감사했던 분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눅17:17). 돌아온 한명의 문둥이! 그가 우리가 될 때, "감사의 기억 그리고 마음과 사랑의 나눔"이 올 가을 우리들의 영혼을 풍성케 해줄 것입니다.

신앙이 사람을 더욱 사람답게 만든다!

CT, 실리콘밸리 크리스천 기업인들의 신앙과 테크놀로지 접목 소개 (상)

실리콘밸리에는 이야기거리가 무궁무진하다. 땀질하고 부수고 세우고 고치는 엔지니어들의 땅, 실리콘밸리 이야기는 이미 한 세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샌프란시스코 만을 끼고 있는 이 작은 반도만큼 두뇌들이, 특히 물리학과 수학을 인간의 필요와 욕망과 접합시키는 능력을 지닌 공학천재들이 넘쳐나는 곳은 없을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쉽게 만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 선조들이 꿈꾸었던 곳보다 훨씬 더 살만하게 다가온다.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만들어 내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실리콘밸리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그 꿈이 복음이 빛어낸 꿈이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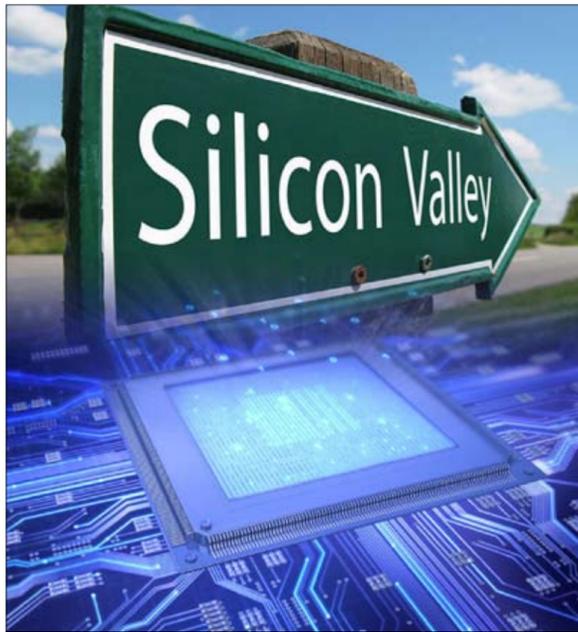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신앙인들의 고민과 노력을 소개해주고 있다(Here's to the Misfits: How Silicon Valley entrepreneurs are taking a leap of faith to create technology that makes you more human). 편집이사 앤디 클라우치가 쓴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2회에 걸쳐 게재한다.

여는 집들처럼 차고야 딸린 평범한, 흰색 내벽으로 된 집안에 소니 뷰가 앉아있다. 교회 지하실에서 봄직한 점식 탁자를 사이에 두고 은행직원에게 대충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중이다.

은행직원은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복장이다. 노타이에 소매 끝으로 멋진 시계가 얼핏얼핏 보인다. 뷰는 검정색 티셔츠와 청바지에 가벼운 슬리퍼를 신고 있다. 그는 맥북을 열어서 자기가 세운 벤처회사 미스피트 웨어러블스(Misfit Wearables)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사실 뷰가 손목에 차고 있는 것은 시계가 아니다. 25전짜리 동전만한 진회색 알루미늄 디스크를 날렵한 스포츠밴드로 고정해 놓았다. 이것이 바로 미스피트의 첫 제품, 샤인(SHINE)이다. "와이어드" 등 신기술을 소개하는 각종 매체들에 이 제품에 관한 기사가 127개나 됐다. "덕분에 이 제품의 쓰임새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뷰가 씩 웃으며 말한다. 그가 스포츠밴드를 풀어 손목에 차고 있던 소형 디스크를 아이폰 화면 위에 올려놓는다. "이 디스크로 지난 한 주간 저의 활동량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올려놓기만 하면 모든 정보가 업로드 되지요. 케이블도, 블루투스도 필요없습니다."

샤인은 건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할 때 그 횟수와 거리 같은 활동량을 기록하는 장치(activity tracker, 활동량 추적기)다. 나이키, 조본(Jawbone), 피트니스(Fitbit) 제품이 이미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샤인의 시장 진출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뷰는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다시 말해 몸에 착용하는 테크놀로지라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 시장에서 디자인으로 승부하고 있다. 2001년 애플의 아이폰이 휴대용 음악기기 시장에 첫선을 보였을 때, 늦은 진출이었지만 매력적인 디자인 덕분에 곧 시장을 지배했다. 애플처럼 뷰의 목표는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제품을 만



들어내는 것이다.

뷰와 같은 실리콘밸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두 가지 사실을 금방 알게 된다. 첫째, 이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 지역은 목회자나 교회개혁자,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런던이나 뉴욕만큼 세속화된 곳으로 여겨지는, 이른바 바벨 벨트는 아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만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수십 년간 교회부흥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한 예로, 리얼리티에스에프(Reality SF) 교회를 들 수 있다. 소니 뷰와 아내 크리스티를 포함해 1200명 정도가 이 교회에 다닌다. 실리콘밸리에서 손꼽히는 회사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라. 뉴욕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둘째, 내가 여기서 만난 그리스도인 가운데 CT기사에 자기 실명 거론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이가 젊을수록, 이제 막 성공을 거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랬다. '이것이 우리 도시'라는 기획기사를 진행하면서 좀더

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제 소명은 세상을 바꿀 테크놀로지를 개발해 내놓을 기업인들을 섬기고 복돋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가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조언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팀원 가운데 있다면 그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겁니다." 그는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핵심 지역으로 세 군데를 꼽았다. 미디어는 로스앤젤레스, 금융은 뉴욕, 테크놀로지는 이곳 실리콘밸리라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하나님이 신앙의 장수들을 실리콘밸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재능과 헌신으로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디자인하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몇몇 창업자들은 이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팔로알토의 작은 빌딩에 있는 피그(Fig.com)의 임대사무실 벽에는 네 가지 포스터가 큼직히 붙어 있다.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라", "진리를 추구하라",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라", "새로운 영역을 쟁취하라". 각 포스터에는 신경계 분야에 주목받는 재포스(Zappos)나 페덱스(FedEx) 같은 기업들의 로고가 붙어 있다. 피그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들에서 선두를 달리는 회사들이다.

나는 피그의 공동 창립자인 케이본 셰이버와 바트 먼로를 회의실에서 만났다. 서가에는 성경책과 상품관리 서적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앞서 만났던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셰이버와 먼로 역시 "기독교 기업"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세우고 운영한 회사를 어떻게 기독교신앙으로 빚어갈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셰이버와 먼로는 그 답을 "풍성한 삶"에서 찾는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p>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3년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3. 수시 입학 가능
4. 본교 졸업 후 IEA 절차를 따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고 IEA에서 목회지 추천 혹은 선교사로 파송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Blended 강의: On-Campus강의와 On-Line강의 융합 방식
4.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5.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종교탄압 속 '지하교회' 계속 성장!

에코노미스트, 새뮤얼 램 목사 소천 후, 중국정부 긴장시키는 지하교회 성장세 보도

중국 가정교회 또는 지하교회는 문화대혁명을 기점으로 농민들 중심으로 확산됐다. 평일에도 '조장' 지휘로 성경공부를 하며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 부흥했는데, 이는 절실한 신앙심으로 무장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정집 등 비밀 야지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며, "신도 수가 많으면 들킨다"는 이유로 주로 50명 단위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중국 내 불법 '지하교회'는 80만개, 신도 수 6천만 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4년 '종교자유' 선포 후 규제완화 불구하고 2007년 한 해에만 체포된 신도는 700여명, 정부가 인정한 삼자교회 교인이 아닌 지하교회(가정교회) 교인들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핍박과 수난의 대상이다. 그러나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성장한다"는 말처럼 중국 기독교는 2020년 2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에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최근 지하교회 지도자인 새뮤얼 램(Samuel Lamb, 중국명 린 심자오) 목사의 소천에도 불구하고 가시지 않는 중국 지하교회 즉 가정교회의 성장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보도(Underground Christianity, Lamb of God: Even ain a death, a popular pastor makes the authorities nervous)를 통해 중국 지하교회의 성장세를 보여준다.

중국에서, 가정교회와 삼자교회는 관리체제와 계파가 다르다. 쉽게 말해서 가정교회는 스스로가 관리하고, 삼자교회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가정교회는 문화대혁명 때 우위병들의 감시를 피해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민초운동이 그 배경으로, 현재 중

없다. 대중국원조협회는 미국 텍사스 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기독교와 관련된 중국 정부의 역할 사례를 웹사이트에 실고, 이를 모아 1년에 1회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현재 실제 중국의 기독교인 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중국 중



저있는 지하교회 수를 약 80만개로, 지하교회 신도 수는 6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비정부 정치개혁 연구기관인 '중국민간조직체계·중국연구소' 리판 소장은 지난해 7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중국 기독교인 수는 2020년까지 2억

고 있다. 결론으로, 이번에 소천한 램 목사는 중국의 종교 탄압으로 20년간 옥고를 치른 인물로 수백만 명의 중국 기독교인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마카오 인근 산악지대에서 목회를 하던 침례교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램 목사는 마오쩌

하나님 찬양 음악으로 사람 살리자!

(1면에서 계속)

영화 비평가들은 스틸본 스피버그 감독의 '신들러스 리스트'가 '사운드 오브 뮤직'을 만났다고 평한다. 생생하게 유럽에서 활약하던 유대인 음악가들의 구조와 생존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음악이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고 있다.

동 다큐는 한 음악가(Bronislaw Huberman)가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한 유대인 말살에서 유럽 최고의 유대인 음악가들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보여주는 긴장감이 감도는 연대기다. 그는 3년 동안 팔레스타인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이작 필만, 주빈 메타 등의 도움으로 유대인 음악가들을 살려냈으며, 폴란드에서 출생한 유대인 바이올리니스트 허버맨은 "이스라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팔레스타인 필하모니)를 창단해 유럽전역에서 1,000명이 되는 유대인 음악가들을 살려냈다.

그는 "나치의 위협이 유대 민족의 문화적 업적을 파괴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음악가들 즉 예술인들이 히틀러가 강조하는 독일민족의 우수성 또는 유대인 학살과 같은 정치사상에서도 음악연주는 계속돼야 한다고 자신의 오케스트라 연주의 당위성을 호소했기에 "명망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가능했던 것이다.

결론으로, 음악은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감동을 준다. 바로 그 음악에는 영혼과 정신을 맡길게 씻어주는 힘이 담겨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감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이나 음악 그 자체에는 선과 악의 이중적인 잣대가 없다. 그것을 악용하거나 선전하려는 사람의 해석이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은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는 도구가 된다. 음악의 힘은 사람을 살린다. 바로 찬양과 복음성가들이 그 증거가 아닌가. 허버맨이 1000명의 유대인 음악연주자들을 살려낸 것처럼 여전히 찬송과 복음성가들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다. 죄인에서 구원받은 영혼으로...

신앙이 사람을 더욱 사람답게 만든다!

(2면에서 계속)

과연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두고 우리는 토론을 벌였다.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출신답게 마커 펜을 손에 들고 화이트보드에 다이어그램까지 그려가면서 그 말의 은유적 의미도 찾아보았다. 예컨대 미스피트는 전자기기를, 피그는 앱을 만드는데, 사용자는 이것들을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해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다.

세이버와 먼로는 피그를 설립하기 4년 전부터 기도 동역자이자 아주 친한 친구로 함께 지내왔다. 이 둘은 회사를 창립하면서 직원들과 수익을 나누는 색다른 방법을 채택했다. 대다수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은 직원들에게 숙식을 겨우 해결할 정도(소니 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월세와 햄버거 값 정도)만 급여로 지급한다. 대신 스톡옵션으로 그들을 붙든다. 하지만 이렇게 받은 주식은 퇴사할 경우 대개 90일 내에 매각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상장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이직할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세이버와 먼로는 변호사들의 회의적인 태도를 묵살하고 스톡옵션 기간을 수년으로 늘렸고, 회사가 성공하면 그 수익을 직원들에게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그의 "진리를 추구하라"는 사훈은 부단한 제품 개발을 포함한다. 신체적, 영적으로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 데 실제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제품에 반영해나가면서 그들의 앱은 더 정교해지고 풍성해지고 있다. "우리는 과장 광고로 사람들을 흥분시키지만 실제로는 별 성과가 없는, 그런 일반적인 창업의 길을 밟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긴 안목으로 "점진적 학습"(incremental learning) 과정을 밟아나가려 한다. "우리는 지금 피그의 두 번째 이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라고 세이버는 말했다.

세이버와 먼로는 한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스피커폰으로 아내와 신임하는 몇몇 고문을 불렀다. 이어 진행되는 기도 모임에 나를 초대했고, 더욱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종교행위가 낯설지 않은 북부 캘리포니아라도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에서 회사대표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풍경은 직원들에게 이상하게 비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피그가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성숙시키려는 모험을 계속해야 합니다. 영적 성숙을 위한 시행착오라면 가치가 있지요." 먼로의 말이다.

(다음 호에 계속)

'삼자교회=지도와 감독', '가정교회=단속과 탄압' 두 가지 기조 유지 중국내 1억 명 신도 중 지하교회 80만개, 신도 수 6천만 명 추산

화복음단체, 안휘성 인산단체, 리상 단체 등이 대표적 교파다.

이들은 자신들을 순수 신앙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신앙에 애착을 갖는다. 반면 삼자교회는 정부의 3차원칙(자립·自立, 자양·自養, 자전·自傳)에 따라 제도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들의 신앙을 '건조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삼자교회도 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등 제대로 된 성경지식을 가진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있어서, 교리 기반 자체는 튼튼한 편이다. 따라서 어느 쪽이든 중국 기독교가 전례 없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

그러나 과거 중국의 지하교회들은 많은 시련을 겪어왔다. 실제로 미국의 대중국원조협회(China Aid)가 밝힌 '2007년 중국 가정교회 박해보고서(Persecution Report)'에 따르면 중국 18개 도시와 1개 직할시에서 확인된 박해 사례는 총 60건. 박해(Persecuted)받은 신자는 788명, 체포된 신자는 693명이었다. '박해'의 내용이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는 확인할 수

없다. 대중국원조협회는 미국 텍사스 주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기독교와 관련된 중국 정부의 역할 사례를 웹사이트에 실고, 이를 모아 1년에 1회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현재 실제 중국의 기독교인 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중국 중

당초 중국 정부가 1억 명일 것이라고 예상한 종교인 수보다 3배나 더 많은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화동사범대학 류중위 교수는 "연해지역이나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곳에서 신도들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기독교였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공인한 5대 종교는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교, 불교, 도교다. 기독교는 이들 5개 종교 중 신도 수 3위권에 속해있지만 류 교수의 말처럼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종교국은 국가 전역에 퍼

명을 돌파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수치다.

리 소장은 "정부 당국의 통제 속에 가정교회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탄압할수록 더욱 확산되고 있어 정부 당국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게 해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한 것이 기독교 부흥의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최근 중국의 지하철에서 성경을 마음껏 펼쳐놓고 있는 중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도, 바로 중국 기독교의 부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원칙을 아직까지는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지하교회인 베이징 서우왕 교회, 상하이 완방선교회 등이 여러 이유로 문을 닫거나 폐쇄됐

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완전한 종교 자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동시에 접하는 중국 기독교의 현주소이다. 한마디로, 현재 중국 정부는 삼자교회에 대해 '지도와 감독', 가정교회에 대해 '단속과 탄압'의 두 가지 기조를 유지하

고 있다. 결론으로, 이번에 소천한 램 목사는 중국의 종교 탄압으로 20년간 옥고를 치른 인물로 수백만 명의 중국 기독교인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마카오 인근 산악지대에서 목회를 하던 침례교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램 목사는 마오쩌

20년간의 수감 경험은 램 목사의 설교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는 탄압을 받을수록 교회가 더 성장했다고 항상 강조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교회성장은 외형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고난은 바로 옴과 같이 영적 성숙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 지하교회는 램 목사의 말처럼 성장에 걸맞은 성숙으로, 중국내 부흥과 함께 전세계 화교권을 대상으로 해외선교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 모두가 하나님에 준비하신 일이다!



한인신학교 최초 ATS 정회원 인준

ATS란? ats

미연방 고등교육인증협회(CHEA) 소속으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탈벗, 클레어몬트, 아주사 등 미국·캐나다에 260여 학교 멤버가 소속되어 있는 신학대학원 최고 협의체입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ATS의 정회원 인준을 받음으로 한인신학교 최초로 미국 신학교와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3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ATS 인준 감사예배

- 일 시: 2013년 9월 7일(토) 오후 6시
- 장 소: 월드미션대학교 채플(6층)

모집학과 "원서모집마감 8월 30일(금)"

학사과정	● 성서신학과(BABS) ● 음악학과(BAM)	● 기독교 상담학과(BACC)
석사과정	● 목회학(M.Div) ● 기독교 상담학과(MACC)	● 신학과(MAT) ● 음악학과(MAM)
박사과정	● 목회학(D.Min)	
단기과정	● 가정상담 사역자 과정(FCC) ● 유아교육 원장 과정 / 유아교육 교사 과정(ECE)	

재정안내

학생 응자	학생 응자는 학사/석사/박사 과정에 가능하며, 졸업 후 남은 이자로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음.
펠 그랜트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미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값을 필요없음.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가을의 길목에서

삶이 복잡하고 번잡해서 그런지
깜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기
도회를 인도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차를 향해 가는데 운전자 옆 좌석
으로 가던 아내가 입을 딱 벌렸습
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차 했
습니다. 자리가 여의치 않아 건널
목 옆의 코너에 차를 아슬아슬하게

파킹했기 때문에 단속반이 위반 딱
지를 창에 붙여놓은 줄 알았기 때
문입니다. 순간적으로 밤에도 경찰
들이 파경을 단속하러 다니나? 하
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지나갔습
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운전석 맞은 편 유리창을 완전히
내려놓은 채로 차를 파킹한 것이었

습니다. 그 바람에 지난밤에 천동
번개와 함께 가을을 재촉하는 소나
기가 많이 내렸는데 그 빗물이 고
스란히 차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
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차의 포켓
에는 빗물이 어항의 물처럼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성도는 하늘을 향
해 마음을 활짝 열어 놓아야 신령
한 것으로 채워짐을 받을 수 있겠
구나 라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삶을 감사하지 못하고 즐겁지 않
은 것은 신령한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결정
적 이유는 영적 마음 문을 꼭꼭 단
아걸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엓
제 전해된 씨의 수필 한편을 읽었
습니다. 그녀는 가을이 오기만 하
면 심어 일 동안을 크게 알아놓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독하게 회의를
빠지게 되고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란히 차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
습니다. 그는 결국 그 병을 극
복하지 못하고 찬란한 재능을 30대
초반에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성서는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건
조하게 되는 이유를 가르치고 있습
니다. 즉 인생은 땅의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
다. 오로지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수행 받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 영
적 창조물이라는 점입니다. 영적인
것을 수행 받아야 왜 살아야 하는
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로
소 깨닫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
런데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본질적
인 것,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
습니다. 그것을 통해 목마름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
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럴수록
목마름은 더욱 커지게 되고 깊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천 년 전이나 지
금이나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았
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한 발
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말았습니
다. 그러럼 인간은 한계적 존재요,
연약한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
다. 무엇을 이루었다고 고개를 들
고 한 없이 교만하지만 실상 별 것
아닌 존재입니다. 이유는 인생은
누구나 5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제
한적 지식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참으로 웃기는 내용
이 방영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미래
를 알려준다는 무당이나 점쟁이들
을 상대로 사기 친 사람에 대한 기
사였습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60

대 여인이 사람을 투시하고, 미래
를 알려준다는 사람들 30여명을 속
여 3천만 원을 사취했다는 기사였
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그들은 모
두 쉬쉬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 단골손님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말입니다.

인생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아들
로 오신 예수그리스도를 믿어야 합
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과 평안을 마음에 품고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집니다. 항상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소망하
는 바람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 놓
으십시오. 그곳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오기 때문입니다(약1:17). 하
늘에서 주시는 것들로 마음에 채울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넉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가을의
길목에서 어디를 향해 마음을 열어
놓고 있는지요?

푸 / 른 / 초 / 장

최해근 목사
(필라 몽고메리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
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주
셨던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약속된
성령께서 오셨다는 외적인 현상
으로 오늘 본문은 청각적인 면과 시
각적인 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
각적인 면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같
은 소리'(v.2)로, 시각적인 면으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v.3)으로
성령강림사건 현상들을 설명해주
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다른 방언' 즉 다른 나라의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령강림
의 사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같
은 청각적 현상이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는 의성어에 불과할
뿐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소
리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언은 우리
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분
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청각적 현상
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강림의 외적인 현상들을 이해
하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출19:18-
19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내셨던
그 때의 상황과 비교해 풀어가는 합
니다. 인간의 청각과 시각을 사용
해 하나님의 현현(顯現)하심을 외
적으로 표현하신다고 이해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오
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에는 특이한
현상이 보이는데 그것은 방언입
니다. 이 방언은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사용하는 보편적인 언어였
습니다. 그것도 한 언어가 아니라 적

어도 15개 이상의 각각 다른 언어
가 성령강림의 사건에 표현되었다
는 것입니다. 왜 성령강림사건이 있
을 때 다른 나라의 방언(=언어)을
말하는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건강한 대답을 우리
는 주님이 주신 말씀과 우리가 밝
게 되는 선교의 현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것(요15:26)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셨을
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누
구이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 그리
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redemptive history)를 완성
시키시는 분으로, 그리고 그 구원
을 우리로 하여금 세계만방에 증거
하도록 만드시는 분으로(행1:8) 오
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보편적인 인간
의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점, 즉 방
언을 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제자들로 하
여금 15개 이상의 각각 다른 지역
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할

수 있도록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요?(v.11). 오순절 방언을 통해서 하
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
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성입니다.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마음을

하면 할수록 전도자의 마음은 더 아
프게 됩니다. 건강이나 전쟁 때문에
내일을 기억할 수 없는 선교지의 영
혼에게 오늘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소개하지 못
할 때, 그때 우리는 언어가 다르
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며 장벽인
지 뼈저리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
다. 선교지의 언어를 배워 그 언어
로 복음을 나눌 때까지 병들고 지친
선교지 영혼이 더 기다릴 수 없음을
알 바로 그때 오순절에 주어졌던 '방
언'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강림
과 함께 방언의 은사가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한 생령이라도 구

때문에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그
런 것이 아님을 압니다. 같은 단어
라도 그 단어가 사용되는 배경과 분
위기에 따라서 대단히 다양한 의미
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
런 모든 여건을 다 고려해 외국어
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
깝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셔
서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는 사
람들의 언어로 말하게 하심으로 복
음의 내용이 변질되거나 오해됨이
없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
되도록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
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은 가장 정
확하고 분명하게 증거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구에
서 쏘아올린 우주선이 목표지점을

언어가 외쳐지고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외적 현상에 놀라게 되고 흥미
를 두었습니다(2:12). 그런데 시간
이 지나면서 외적현상보다 제자들
의 입을 통해 외쳐지는 내용에 더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는 누
구이며 그는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
하셨는지에 대해 조금씩 조금씩 마
음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운 적이라
곤 한 번도 없는 다른 나라와 지역
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이 이루 말
할 수 없이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
이지만 그런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점점 집중을 받고있는 분은 다름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
이 주어졌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가
장 위력적으로 방언이라는 매개체
를 사용해 선포되었다는 점입니다.
오순절 방언의 사건은 십자가 복음
의 위대함과 존귀함을 가장 극명하
게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순절 성령강림사
건에 있었던 방언을 우리의 선교지
와 전도지를 중심으로 재해석했습
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시는 하
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 음성
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인생
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소식을 우
리가 단 한 순간이라도 지체하지 않
고 빨리 전해야만 한다는 긴박성을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
식은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하게
전달되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비
로소 삶의 방향과 의미 그리고 참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이 주님의 마음과 소원을 오순
절 방언사건을 통해 찾아내어 우리
의 오늘 현실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와 방언

(사도행전 2:1-13)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의 장벽입니다. 가난함이나 질
병은 오히려 관찰합니다. 더 큰 쓰
라림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있는
그들에게 소망과 생명의 말씀을 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점입
니다. 특별히 죄, 의로움, 용서와 같
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할 때는 정말 힘이 듭니다.
주변에 통역을 해주실만한 분이 계
시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선교지원
주인과 단 둘이 있으면서 복음을 나
누어야 할 때는 언어로 인해서 찾
아오는 슬픈 절망과 좌절을 가슴에
담곤 합니다. 그냥 상대의 손을 잡고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을 눈물로
써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
니다.

더구나 상대가 처한 상황이 긴급

원하는 일이 지체되어질 수 없는,
너무도 긴급하고 시급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지
도자와 백성들이 한 팀이 되어 십자
가에 못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생명
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가장
빨리 증거하는 길이야말로 방언을
통해 직접 현장에서 바로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사
건은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구원
의 소식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십자가의 복음은 가장 정
확하고 분명한 내용으로 선포되어
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역을 사용해 복음을 나누는 것
보다 가장 정확한 언어전달의 방식
은 우리가 해당언어를 완전하게 습
득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문화이기

향해 날아갈 때 지극히 작은 각도
차이만 만들어져도 전혀 다른 목표
지점에 도착하게 됨을 기억할 필요
가 있습니다. 영원을 향해 가는 길
을 보여주는 생명의 복음은 가장 분
명하고 정확하게 선포되어야만 함
을 방언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됩
니다.

세 번째, 오순절 방언의 사건은
복음의 위대함을 말씀하고 계십니
다.

제자들이 방언을 사용하면서 말
한 내용은 '하나님의 크신 일' 즉 예
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루신 십자가 구원의 사건, 바로 복
음이었습니다.

태어나고 처음 보는 현상이 오순
절날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적어도 15개 이상의 다른

송용걸 목사 초청 영적각성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

주 제: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일 시: 2013년 9월 15일-17일(주일-화)

- [주일] 오전 8시/11시 배앗아서 주시는 하나님
오후 7시 지나가는 자와 예루살렘의 딸
- [월] 새벽 5시 30분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후 7시 45분 변화를 받아라
- [화] 새벽 5시 30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
오후 7시 45분 성령 충만을 받아라!

- 일시 : 9월 16일(월) 오전 10시
- 장소 : 나침반교회
- 감사 : 송용걸 목사

목회자 세미나

강사



송용걸 목사
(잠실 성전교회 담임)



민경엽 목사
(나원교회 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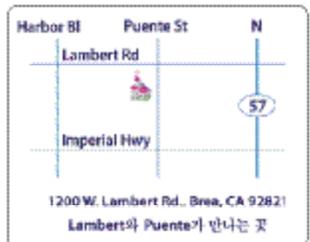
- 종신대학교, 종신대학을 졸업
- 풀러신학교 수석
- 전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총회장
- 전 세계한인선교협의회 총회장
- 전 시카고 해브론교회 담임목사
- 전 송파지역 기록연합회 회장
- 현, 종신대학교 평의회 회장

- OC 교협협의회 회장

주최 : 오렌지카운티 기독교 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모이는교회 흠여지는교회
나침반교회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아동소아성애자들 - “우리에게도 같은 권리를 달라!”

캘리포니아와 큰 도시들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선두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로 다가오는 사건이 몇 주 전에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른 아닌 영어로는 pedophilia라고 하는 아동 소아성애자들이 어린아이들을 향한 자기들의 성적 욕망이 동성연애자와 다른 것은 또 하나의 “성적 취향”이라고 주장하는 발의안이 올라오게 된 사건입니다.

소아성애자들은 동성애운동가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동성애운동가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통해 가진 같은 권리를 주

APA의 또 한번 왜곡된 의학정보 지난번 설명했듯이 1973년 미국 정신과협회인 APA는 정신질환의 목록에서 동성애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신과협회 의사들 중 B4U-ACT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동소아성애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이들은, 최근 APA의 정신건강 장애의 진단과 통계가 들어있는 매뉴얼에서 아동소아성애에 대하여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는 토론회까지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 의사들에 의하면 B4U-Act 단체는 이번에 소아성애자들을 “

것이 이미 연방정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성년 증오 범죄 방지법에 의해 “성적지향”을 보호받는 클래스로 나열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뜻을 정의하지 않았기에 매우 애매모호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원들은 “아동소아성애는 ‘성향’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정상적 행위라고 정당화 될 수 없다”라고 지적하는 수정문을 “미성년 범죄방지법”에 추가하려고 했으나, 그 개정안은 민주당원들에 의해 패배했으며, 특별히 플로리다 민주당의원인 Alcee 헤이

한 발언들을 해주어야 할 교수나 심리학자들도 그들의 가치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내 생각, 나의 욕구”가 곧 그들의 법이 돼버린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또 어떤가요? 자기중심적이고 권력과 인기를 몰아올 수 있는 것이라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현 캘리포니아 정치인들입니다. 다행히 몇몇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정치인도 있지만 너무나도 소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크리스천들이 제대로 알고 거기에 대한 크

동성결혼 합법화 힘입어 소아성애자들도 정당한 “성적취향” 주장 아동소아성애, 미성년범죄방지법에 추가하려했으나 민주당 반대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들도 여겨져야 할 이들이 훨씬 대낮에 자신들의 성적 성향이 정상적일뿐 아니라 동성애자들처럼 자기들의 성적성향도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가 막힌 요구입니다.

그동안 동성애적인 삶을 반대하는 사회 언론비평가들이 주장하기를, “만일 미국사회에서 동성애를 단순히 “다른 생활양식”이나 “또 다른 성적 취향”으로 구분하는 것이 단 한번이라도 허용된다면,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빚어지는 성적 취향에 대한 가지각색 사람들의 성적 평등요구들을 제한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미국사회는 상상하지 못할 혼란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모든 성적 취향에 문을 열어줄, 비정상적인 성적취향들을 제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동성애 성적 취향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너무나도 확실한 이유를 잘 주장해왔습니다.

당시 동성애운동가들은 이런 비평가들의 주장을 자신들을 향한 모욕으로 여기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해도 결코 동성애비평가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결국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자 ‘아동소아성애자’들까지도 자신들의 ‘성적취향’을 합법화 하라는 지경까지 오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에 걸리는 사람들”이라고 재정의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B4U 조직의 목적은 소아성애자들의 말도 안되는 범죄적인 성적행동을 “정상적인 행위”라고 교육시키는 것이 목적인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목적은 일반인을 교육시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했던 것과 같이 정신과 전문가들과 정치인들 등 사회와 국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것이지요.

이일로 인해 1998년에 APA가 주장하는 보고서를 읽게 됐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내용을 알았습니다. 정신건강 의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쓴 보고서는 오히려 어린 아이들을 성적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보고서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APA 보고서에는 이렇게 주장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의학적 보고서들은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들이 어린 시절 성적 학대 경험의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 과장되게 보도되었다. 지금의 성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아이들과 성인 사이의 성관계가 연결되었다는 보고는 거의 없었다”라고 또한번 왜곡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애매모호한 현 연방부 법안 그런데 문제는 “소아성애”라는

스틱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백악관이 동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장서간 캐나다와 유럽의 예 올해 초에 이미 미국보다 앞서 몇 년 전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킨 캐나다에 있는 두 심리학자들도 “아동 소아성애는 마치 동성애나 이성애와 같은 성적 취향일 뿐이다”라고 비양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동성결혼을 합법화 나라들에서는, 아이들이 성행위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18에서 16, 그리고 이제는 12 살까지로 내리는 나라들이 이미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이며 몬트리올대학교의 은퇴교수인 Van Gijsselghem 역시 말도 안되는 발표를 했는데, “소아성애자들은 단순히 때때로 작은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이성성과 동성성 사이에서 씨름하는 한 개인과 같다”,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들이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아동소아 성애자들은 어린이만을 선호하는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의 성적 취향을 변경할 수 없다. 아마도 그들은 금욕주의자로 남아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정부의 회의 의원들에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양심선언을 해주고 아이들을 위

리스천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기도와 믿음의 행동,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결론

어린이를 보호하는 성범죄자법들이 지금 캘리포니아, 조지아, 아이오와 등 여러 주에서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자 이제 성범죄자들이 자신들에게도 성적성향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일어서기 시작한 것이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성범죄자들은 그들을 학교나 공원 근처에 사는 것을 금지하는 지금의 법률이 그들을 종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처벌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동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기 원하는데, 아동들이 없는 곳에서만 살게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입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들이 지금 하나씩 두개씩 현실로 몰려오고 있는 이때, 이제는 진정 교회들과 교역자들, 성도들, 학부모들이 함께 일어나 우리 다음세대를 적극적으로 지키고 그들의 미래를 성경적 세계 가치관으로 무장시켜야 할 때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 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미국의 유명한 중보 사역자인 신디 제이콥스와 릭 조이너가 “2015년에 대한민국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남북한 통일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을 인터넷 기사를 통해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지금도 예언이 있는지요?

-파사디나의 영 김

A: 저도 인터넷 기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처럼 오늘 날도 예언이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1:1-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그 모든 계시는 충족합니다. 더 이상의 말씀계시는 없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로 만유의 후사를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우리는 신

예언은 성경66권으로 다 이뤄져... 기도하며 남북통일준비 바람직

구약 66권의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성경을 통해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성도들은 이 기록된 66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예언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예언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전14장처럼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신디 제이콥스(Cindy Jacobs)라는 여성 중보기도 사역자는 “2015년에 북한의 권세는 무너질 것이며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를 북한에 허락할 것”이라면서 하나님은 북한을 흔드실 것이며 북한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통일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한국에 엄청난 영적, 물질적 부강함을 한국에 쏟아 부어주시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릭 조이너(Rick Joiner)란 목사도 “한국은 장차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북한에 놀라운 변화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며 두 개의 분단된 국가가 재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때 한국은 영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지구상 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국가의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목이 터져라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바쳐서 통일, 통일이여 어서오라. 통일이여 오라.” 남북한 통일이 2015년에 일어난다는 말은 솔직히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2015년은 한국이 1945년 광복한 지 70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바울시대에 행11:28절을 보면 아가보란 예언자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미국에 와서 부터 새벽 기도시간에 늘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북한 통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령한 사람의 예언이라도 그 예언이 들어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5년이 남북한 통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해왔던 통일은 언젠가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국가도 장차 올 남북한 통일을 위한 민족적인 준비를 해야 하고 한국 교회들도 지금부터 통일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교신 선생이 말한 3가지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대로 사는 한국이 남북한 통일이 되어 그 힘으로 마지막 때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민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On Campus Courses

2013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Sept 30-Oct 4 (9월 30일-10월 4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ct 7-Oct 11(10월 7일-10월 11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A Session

•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B Session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 Growth(교회 개척과 성장 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ydney, Australia

• Aug 26-30(8월 26일-30일)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Korea

• Nov 4-8 (11월 4일-11월 8일)
DI823 Cultures of the New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Los Angeles, CA

• Sept 16-20 (9월 16일-20일)
DI 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Eddie Kim(김익원박사)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회서신

“0” 점짜리 그리스도인



여승훈 목사
(휴스턴 사랑의교회)

세월을 따라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혼을 점점 더욱 지배해가면서 일어나는 변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 전에는 자신에 대해 스스로 괜찮게 여기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한없이 연약 하다는 생각이 앞서게 된다.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주변환경의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마음이 약해져서 나오는 발상은 아니다. 주 예수그리스도가 내면에서 점점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 예수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위대함을 더욱 가슴 깊숙이 느끼면

서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낮아지게 느끼는 것이다. 자신을 바로 보는 눈높이가 “0”을 가리킬 때 그제야 여호와 하나님께 서 만족해할 수 있다. 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자신의 연약성은 더욱 크게 보여지고 민감하게 느껴진다. 그

전에는 자신에 대한 눈높이가 높은 것을 선택했는데 이제는 그 눈높이가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보고 만족해한다. I am nothing으로 만족하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부한 자가 되는 이것이 바로 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비밀이다.

일반교육의 방향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근사한 사람이 되라고 자극한다. 그 결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근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사상에서 되새겨 보면 그런 사고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이 꼭 필요해 보인다. 내가 근사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 예수그리스도의 근사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신의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한 가지 일은 주 예수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것이 되게 하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연극이나 드라마에서 역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다. 주연은 주인공이고 조연은 주인공을 지원하는 역을 맡은 사람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근사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동원된 조연들이다. 그런데 이 위치를 망각하고 주연의 위치를 넘본다면 신앙생활이 거꾸로 가고, 인생이 거꾸로 가게 될 것이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 주 예수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고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 근사하게 되는 것은 당신의 역할이 아남을 기억하라. 당신의 역할은 그저 주 예수그

리스도의 근사함을 드러내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면 주 예수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를 근사하도록 복 주실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 근사해지려다가 그 위치에 도달하지 못하여 넘어지고 부딪혀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주위에는 너무나 많다. 이런 사람들은 근사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근사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근사해지지 못한 것 때문에 배배의식에 젖어들게 되고, 근사해지지 못한 것 때문에 뒤로 주춤거린다. 주 예수그리스도의 근사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당신의 생애를 드러보라. 차원이 다르고 품격이 다른 근사함을 주 예수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쓰임주시길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인 66% “공립학교서 성경 꼭 가르쳐야”

미국인들의 다수는 도덕성 함양을 위해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 기독교연구소 바나그룹은 성인 20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성경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바나그룹은 매년 성경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 발표해 왔는데 공립학교 내 성경 교육에 대한 의견은 이번이 처음 공개됐다.

미국에서는 1962년과 6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고 기도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절반이 넘는 미국인들은 학생들이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알아가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배우는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성경 교육 지지자 중 77%는 “도덕적 품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미국인들은 사회 전반에 퍼진 도덕적 해이의 원인을 성경 교육 부재에서 찾기도 했다. 응답자 중 77%는 미국에서 도덕적 가치가 쇠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가운데 32%가 교과 내 성경문학이 줄어드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성경 교육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성경 교육 지지자 중에서도 45%는 ‘종교에 대한 단순한 흥미로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2%는 성경 교육이 반대론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염려했고, 11%는 다른 과목을 배우는 데 소홀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미국 성서협회 더그 버즈을 회장은 “성경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기독교가 남의 종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 ‘노아의 방주 교회’ 인기몰이

멕시코의 한 교회가 성경 속 ‘노아의 방주’ 형상의 성전(사진)을 건립해 전도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멕시코 현지 언론 노르델디지탈이 최근 보도했다. 멕시코 북부 시우다드



후아레스 지역 팔라브라 드 비다 교회는 9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달 말 새 성전을 완공했다. 교회는 지난 1월 배 모양을 띤 성전에서 지역 주민을 초청해 교육 세미나를 가졌다. 지역 명소로 떠오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노르델디지탈은 전했다.

이스라엘 가르시아 페레스 목사는 지난해 11월 새 성전 건축을 위해 노아의 방주와 닮은 낡은 건물을 구입했다. 페레스 목사는 건물을 허물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면서 교회를 건립했다. 페레스 목사는 “성전 구입 이후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이 50% 늘면서 예배 횟수를 늘렸다”고 전했다. 세계적으로 범죄율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다.

日기독교잡지 ‘미니스트리’ 한국편

“기복신앙, 군복제도, 사모님 집사님처럼 이름보다 직책을 부르는 습관, 민중신학, 단기선교, 통일교와 신천지 같은 이단이 많다는 것.” 일본에서 발간되는 기독교 잡지 ‘미니스트리’ 최신호가 요약한 한국 교회의 특징이다. 목회자를 위한 주간 잡지인 미니스트리는 ‘이웃 나라의 기독교-한국편’이라는 특집 기사를 싣고, 일본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관찰한 한국 교회의 모습을 전했다.

이 잡지가 한국 교회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로 가장 먼저 꼽은 것은 기복신앙이었다. “6.25전쟁 이후 폭발적으로 확대된 현세이익을 중시하는 신앙형태를 이르는 한국 특유의 표현”이라고 이를 설명하면서 “식민 지배와 전쟁, 독재 정권 등 사회 격변에 따른 불안 속에서 물질적인 구제, 은혜, 개인적 치유를 구하였다”고 소개했다. 민중신학도 한국 교회의 특징으로 거론하면서 “한국의 산업화 시기와 군사독재 시기에 소외와 차별의 현장에서 창출된 한국적 상황 신학”이라고 소개했다. “독재 정권의 폭압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실존 속에서 함께 성서를 읽고 복음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신학적 작업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신학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사모님’이라는 호칭도 특색으로 꼽으며 “원래는 스승의 배우자를 제자들이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인데, 이른바 목사 부인에 해당하는 말이



되었다”며 “한국 교회에서는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직책으로 부르는 습관이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한국 교회를 향해서는 객관적이거나 비판적인 의견보다는 고개를 숙이거나 외형적 성장을 높이 평가하는 얘기만 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니스트리의 특집 기사는 그런 ‘다테마에(겉치레)’를 넘어 한국교회를 향한 일본 목회자의 ‘후네(속마음)’를 드러낸 것으로 일컫는다. 일본 기독교는 천황에 비판적이었던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의 영향으로 평화주의 성향이 강하다.

미 가톨릭수녀 100세 생일소원 “여성사제 허용”

미국 가톨릭 베네딕도 수녀회에서 80년을 보낸 노년의 수녀가 100세 생일을 맞아 여성 사제 서품 허용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28일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시카고 세인트 스칼라스티카 수녀원의 비비안 아이반틱 수녀에게 이날은 100번째 생일이자 수녀원 입회 80주년인 되는 날이다.



아이반틱 수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제 또는 수녀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10세 무렵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여성은 사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20세 때 “언젠가 여성에게도 사제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며 우선 수녀가 되기로 결심했다. 아이반틱 수녀는 지난 25일 일요일 미사 후 동료 수녀들과 친인척들이 마련한 축하 행사에서 100세 생일 케이크와 수녀원 입회 80주년 기념 케이크를 나란히 앞에 놓고 “지금도 사제 서품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마치 시위 구호를 외치듯 주먹을 쥐고 팔을 허공에 뻗치며 “가톨릭교회는 여성에게 사제 서품을 허용하라”고 말한 뒤 아이처럼 천진하게 웃었다. 이어 진지한 표정으로 “가톨릭교회에도 여성 고위 성직자가 필요하다”면서 “내가 직접 그 꿈을 이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나보다 젊은 여성들은 꼭 그런 기회를 얻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발에 금테안경을 쓰고 열은 청록색 투피스를 입은 아이반틱 수녀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 여성들이 전업 주부, 간호사 이외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나는 컴퓨터로 카드게임을 즐긴다”며 “다이상 전통적인 수녀복을 입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여성사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이다. 지난해 로마 교황청은 미국의 주요 수녀단체인 ‘여성 종교인 리더십 컨퍼런스’(LCWR)가 여성 사제 서품, 동성결혼, 낙태 등 가톨릭 교리와 배치되는

급진적인 여론론자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며 견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오바마, 러시아방문 때 동성애자 면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곧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동성애자 단체와 만날 예정이어서 가뜰이나 불평한 양국 관계가 더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들은 2일 오바마 대통령이 5-6일 러시아 방문 기간에 레프 포노마레프, 루드밀라 알렉세예프, 파벨 치코프 등 성 소수자(LGBT) 및 인권 단체 활동가들과 회동한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인 2009년 러시아 방문 때도 인권 지도자들과 만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면담은 양국 간,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관계가 결렬될 대로 결렬될 위기에 추진되는 것이어서 최근 일련의 반(反) 동성애 관련 법을 통과시킨 러시아를 자극할 것으로 관측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미성년자에게 비전통적 성관계(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이른바 동성애 통제법에 서명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또 동성애자들의 한혈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보 당국의 개인정보 감시 프로그램 운용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임시 망명을 러시아 정부가 허용하자 G20 정상회의 기간에 갖기로 했던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취소하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

미국 정부는 또 최근 시리아 화학무기 참사와 관련한 러시아의 행보도 강력하게 비난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완전히 마비됐으며 (국민을 화학무기로 살상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책임을 물을 의사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시리아 비난 결의안 채택을 막은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다.

반면 러시아 측은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 그것도 인체에 치명적 손상을 주는 맹독성 사린가스를 사용했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결론은 증거가 불충분하며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의회(상원) 대표단을 조만간 워싱턴DC에 파견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 포기를 설득할 예정이다.

Better World, Better Life, Better You! 베데스다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www.buc.edu

베데스다 대학교는 ... 1976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세계복음화와 인류봉사를 주도해 나갈 전문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며 세계를 향해 경쟁력있고 국제성을 갖춘 종합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 교육부 USDE 및 고등교육 인가기관 CHEA 산하 ABHE 및 TRACS의 인가를 받은 정회원대학으로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도 발행하고 FAFSA를 통한 연방 정부 학비 보조 및 용자가 가능하며, 기독교 대학 체육 협회 NCCAA에 공식적으로 가입되어 축구부(남/여), 야구부 등 체육특기생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학점취득이 가능하므로 전세계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모집학과 및 세부전공

<p>신학학부</p> <p>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실천, 교육합니다</p> <p>풍부한 사역 경험과 복음주의, 오순절 영성에 투철한 교수진으로 구성된 신학학부는 목회학, 성서신학, 선교학, 기독교교육학 전공이 있으며 목회학, 성서신학 석사과정과 목회학 박사과정이 있습니다.</p>	<p>유아교육학</p> <p>복음을 바탕으로 사랑과 책임감 있는 교육 모델을 제시합니다</p> <p>유아교육 교사, 원장 자격증 과정과 함께 4년제 학사학위(B.A) 과정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와 원장, 유아교육 사역자를 배출합니다.</p>	<p>시각디자인학과</p> <p>디자인 경험이 없어도 열정과 꿈만 있다면!</p> <p>다양한 디자인 클래스로 자신에게 맞는 디자인을 살려보세요. 졸업후에는 아트 디렉터, 광고회사, 그래픽 디자이너, 시각디자인 분야에 관련된 여러 기업체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p>
<p>음악학부</p> <p>음악적 재능과 학문 탐구를 통한 손색 없는 인재를 양성합니다</p> <p>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역량있는 교수진을 통해 강도 높은 레슨으로 클래식, 실용음악, 찬양사역 등 다양하게 세부전공으로 공부할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다양한 취업 기회가 주어집니다.</p>	<p>경영학과</p> <p>경영학과를 통해 자신만의 꿈을 키워보십시오!!</p> <p>현대적인 경영관리의 기법, 실무능력과 실질적인 경영지식을 습득 함으로서 비즈니스, 상업, 정부 그리고 기술적인 각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집니다.</p>	<p>IT학과</p> <p>미래가 밝은 IT학과는 기술 전문인 배양을 목표로 합니다</p> <p>21세기를 주도하는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며 시스코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전문인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졸업전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p>

종교 다원주의를 경계하라 (2)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담임)

3. 타 종교들과의 대화

다원주의자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문구가 있다. 그것은 “타 종교들과의 대화”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이 담고 있는 본질적 의도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갖가지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얼핏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만한 논리로 사랑을 말하며 화합과 연합과 일치를 강조한다.

물론 대화 자체가 악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 됨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각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데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같은 종교가 아니다. 신학체계가 다르고 믿음의 성격과 믿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많은 이단이나 사이비집단과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물며 타종교와의 일치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일치를 기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모두가 수긍하고 수용할 만한 조건이 제시될 때야 만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화를 위해 제

시하는 그 조건들 바로 그 자체가 문제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종교다원주의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20세기 신학자 중에 틸리히(Paul Johannes Tillich)가 있다. 그는 기독교의 신론을 완전히 비신화화 하였다. 그에 의하면 하나

인 존재가 있어서 그에게 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관심사가 있으면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이다. 즉, 궁극적인 존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그의 하나님이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다.

틸리히의 이와 같은 주장은 타종교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거나 하나의 사상이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폄하하며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상으로 접근한다면 그 어떤 타종교와의 대화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 같은 개념일까?

히크(John Hick)은 지금까지 기독교는 배타적 절대주의라는 우월주의에 기초하여 기독교만이 절대적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종교라고 생각하였고, 신에 도달하는 길도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이 태양이며 빛과 생명의 근원으로 모든 다른 종교는 자신들의 다른 방법으로 빛을 반사한다.”

이렇게 볼 때 그들이 주장하는 신, 적어도 히이나 틸리히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의미하고 있는 신 개념은 기독교가 말하는 인격적인 존재나 절대자 창조주가 아니다. 때때로 그들이 절대자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를 갖게 한다. 다원주의가 만들어낸 혼합종교의 함정이다. 올바른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록 히이나 틸리히가 말하는 신개념과 똑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신 개념의 공통점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궁극적 실재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경험한 신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예수가 중심으로 삼은 신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보편적인 규범성을 절대화해서 숭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만이 절대적이고 그 외 모든 역사적 인물들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의 특수성을 상대화 하면 종교들 간의 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사마르다는 보았던 것이다. 심지어 사마르다는 선교는 종교적 제국주의 상징이며 비성경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도록 전도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 위배되며, 신앙은 역사적 경험의 열매이지 사람에게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여기서 전 국제기독교연합회(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총재 Carl McIntire 보좌역을 맡았던 조영엽 박사의 다음과 같은 비평을 눈여

하나님을 해방자 하나님(고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혁명가, 해방자로, 사회 구원자로 주장하는 자들도 많다. 이는 남미 해방신학(Liberation Theology)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다.”

4. 대화를 위한 접촉점

타종교들과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들게 되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접촉점’(Points Of Contact)이란 단어이다. 사실 타종교들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접촉점을 찾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또 그것은 일면 성경적이기까지 하다. 인간이 비록 타락한 상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극적인 모순된 위상이 인간이 안고 있는 깊은 문제이며, 인간이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음을 증거한다. 성육신 사건은 이 비극적인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를 담은 접촉점 찾기의 계시행위인 것이다. 인간 속에 접촉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증으로 이보다 더 강한 논증은 없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찾고 있는 접촉점에 대한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합리화 되고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일까? 다시 질문을 바꾸어 성육신 사건으로 인한 접촉점과 그들이 찾고 있는 접촉점의 의미가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음호에 계속)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 창조주가 아닌 존재의 근거, 힘으로 수용 “역사적 예수는 상대적, 타종교특수성 상대화 하면 대화가능” 주장

님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창조주가 아니다. 신은 존재의 근거이고 힘이다. 신은 용기이고 의미이다. 절망적일 때 신은 소망하고, 불안할 때 신은 용기로 보면 삶을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틸리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이 아니다. 예수는 한낱 인간일 뿐이었는데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므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종교를 궁극적인 관심사라고 표현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관심사를 대변하는 것이다. 궁극적

하나밖에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혔다고 말한다. 즉, 기독교를 중심으로 다른 종교는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위성이 회전하듯, 그 주변을 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코페르니쿠스의 말을 보자.

“우리 지구를 포함한 모든 천체는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신앙의 우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기독교나 다른

타종교들 간의 대화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세계적 한 단체의 예를 들어 보자 한다. 그것은 바로 2013년 부산총회를 계획하고 있는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이다. 1968년부터 1980년까지 이 단체의 종교대화담당자로 일하면서 세계종교들 간의 대화를 추진했던 인도 출신 사마르다(S. J. Samartha)는 종교들 간의 대화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만 그도 역사적인 인물이므로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말

겨 볼 필요가 있다.

“W.C.C.는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하였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하나님과 어떠한 구주로 고백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W.C.C.는 회원 교회들이 기본원칙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원칙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각 회원 교회에 달려있다. 교회들은 W.C.C. 기본원칙을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의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W.C.C. 회원 교회들 안에는



가정사역 칼럼

이혼가정과 그 자녀가 겪는 고통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중에 이혼을 겪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이혼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몇몇 가정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사회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그 안에서 겪는 이혼가정 자녀의 고통도 여전히입니다. 한국에서는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김석준 등) 주최, 중앙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혼의 한국적 현황, 그리고 원인과 대책”을 주제

로 한 심포지엄에서도 자녀양육의 문제가 이혼가정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혼가정 자녀가 겪고 있는 고통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들의 생생한 증언은 이혼가정 자녀들의 인터넷카페(cafe.daum.net/ejamo)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을 인용하면, 가장 크게 밀려오는 감정은 분노감과, 둘째로는 죄책감이 크며 셋째로는 낮은 자존

감을 들수 있고 넷째로는 우울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아이들이 갖는 분노에 대해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 심리학과의교수는 이혼가정 자녀들이 겪는 첫 번째 정서적인 변화로 “분노감”을 꼽았습니다. 특히 한쪽 부모와 연락이 끊겼거나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느낄 경우 자녀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엄청나

니다. “엄마는 언제 만나자 하고 그 날은 전화를 안 받습니다. 내일도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역시나 거짓말이겠지요...그만큼 제가 복수할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호통쳐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아요...아빠는 왜 날 버린걸까요”라고 허공을 치는 힘없는 말들이 머리속에서 맴돈다. 하지만 이러한 분노와 원망 속에도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공존한다. “내가 이런 생활을 하는 게 모두 엄마 때문인 것 같아 자꾸 미운 마음이 들려고 해요.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엄마란 건 알겠는데. 마음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네요.”

또 함께 사는 부모에게 미안해 다른 부모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다. 난 아무 말도 못하고 눈

물만 흘렸다. 만나고는 싶는데 또 어머니한테 미안해질까 봐...” “싸워도 같이 살았으면...” 이혼후 부모의 집과 충격이 너무 커서 비틀거리는 동안 자녀들도 같은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자녀들의 상태를 돌봐주지 못하게 될 때 그 결과들이 자녀의 결혼생활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은 저희가 진행하는 이혼가정 회복모임에 A라는 젊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연인즉, 자신의 결혼생활이 어려워 별거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어려서 부모님의 이혼과정 중 A가 겪었던 정서적 아픔이 처리되지 않은 것이 자신의 결혼생활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어린 시절 침투했다가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A는 저희와 함께 이혼가정

회복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회복의 과정을 거쳐 아내와 다시 합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정 중에 생기기 되는 어려움을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로 잘 표현을 못해도 그 아픔의 과정을 아이들도 함께 통과하는 것이기에 이혼가정 자녀회복모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는 성인들을 위한 모임과(한국어, 영어) 자녀들을 위한 모임도(5세- 12세) 같은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함께 참가했던 아이들이 얼마나 밝아지고 여러 면에서 성장해가는 지 결에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더이상 자신이나 가까운 가족들 가운데 이혼가정의 문제를 덮어 두려고만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이메일: milykum@gmail.com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 기간 : 2013년 8월 22일(목) ~ 31일(토) 9월 2일(월) ~ 12일(목)

| 시간 : 오후 7:30, 새벽 5:30, 오전 10:30 * 주일은 기도성회가 없습니다.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담임 조성근목사)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 (213)382-1450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본당, 부속건물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54. 창조론의 기초(5) - 성경이 말하는 노아홍수

그 홍수를 일으킨 물들은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이 방주에 다 탈 수 있었을까? 공룡도 방주에 탔을까? 창조과학자들은 성경과 과학을 통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노아홍수가 역사적 사실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성경은 노아 당시의 대홍수로 산들이 물에 덮였다고 말하고 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심오 구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창7:19-20). 여기서 ‘천하’는 대기권 아래를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홍수는 전 지구적인 것이었다. 성경은 40일 동안 밤과 낮이 쉬지 않고 비가 내린 특별한 사건으로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홍수는 1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처음 5개월 동안은 물이 온 지구를 잠입해 덮었고, 그 이후에는 물이 점점 빠져나갔다고 알려주고 있다.

성경은 이 홍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지질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정보 사이 사이들을 맞추어 볼 수 있게 되었다. 대홍수를 일으킨 하나님의 일차적인 목표는 지구 즉 대륙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동시에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창6:13), “땅을 침몰할 홍수”(창9:11),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도다”(벧후3:6),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도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사54:9-10). 실제로 노아홍수의 기록 중에서 ‘물’보다 훨씬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땅’이다. 노아홍수는 ‘홍수’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격변(catastrophe)’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느낌을 줄 것이다. 전 지구가 완전히 부서져 재편되어버린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냥 잠잠하게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은 별 일을 하지 않지만, 움직이는 물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악하고 폭력적인 사람들과 더불어 지구 자체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미 경고를 하셨었다(창6:13). 증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동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에너지를 가진 물이 150일 동안 지구 대륙을 이리저리 휩쓸게 하신 것처럼 보인다.

그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대양은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바다의 평균 깊

이 노아홍수의 물이었는데 전 지구를 멸망시키기에 충분하였음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물은 땅 밑 깊은 곳에 있었던 샘이 터질 때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릴 때 지구 위에 넘치게 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창7:11-12).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구 사 진을 보면 지구는 거의 바다밖에 없는 것처럼 바다가 넓다.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은 필리핀 근처의 마리아나 해구인데 10,990m다.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가 8,848m이므로 2000m 이상 차이가 난다. 노아홍수에 동원되었던 물의 거의 대부분은 지금 이 바다에 있는 샘이다. 극히 적은 양인 약 2%의 물은 빙하상태로 육지 위에 있다.

방주의 동물들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길이는 135m, 폭 22.5m, 높이 13.5m였는데 배가 아니라 밀바닥이 평평한 상자(box)였다. 이 방주의 용적은 약 14,000톤으로 수출용 컨테이너 522량, 양 125,000마리를 실을 수 있다. 동물들은 씨를 보존하기 위해 각 종류별로 대부분 쌍으로 방주로 오도록 하셨다. 동물들은 위험한 시기가 아문 본능적으로 이동을 하고 그 위험이 지나도록 동면같은 수면현상을 보인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홍수 기간 동안에

종류(kind)는 교배 가능성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개들은 야생 카요티나 늑대와 다른 종(species)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서로 교배가 되므로 같은 종류(kind)인 것이 확실해 보인다. 방주에는 개 종류 두 마리와 고양이 종류 두 마리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홍수 후에 환경적응 등에 의해 오늘날과 같은 다양성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방주에 타야 할 동물들의 수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아무리 많아도 25,000 쌍 이상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 큰 동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평균 크기는 보통 개보다도 작다. 그러므로 이 동물들과 이들이 먹을 식량이 들어갈 방주공간은 충분하고도 남는다.

또 정한 동물과 새들은 7마리씩 방주에 태웠다. 정한 동물들은 대부분 가족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가족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방주에 탈 때도 가족을 언급하였고, 홍수 후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때에도 가족단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창9:2). 정한 동물 7마리 중에서 한 마리씩은 홍수 후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것이다.

방주 안의 공룡

공룡은 창조주간 6일째 창조되었고 노아홍수 이후에도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공룡도 방주에 승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공룡은 특별한 파충류들이었으므로 현재 살고 있는 큰 파충류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악어나 뱀과 같은 큰 파충류들은 사는 동안 성장이 중지되지 않는다. 방주의 목적은 창조된 동물 종류(kind)들이 하나도 멸종되지 않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것 즉 늑은 동물을 데려오지 않으셨을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적합한 짝과 건강한 한 쌍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악어나 뱀이 어렸을 때는 아주 작은 것처럼 방주에 탔던 공룡들도 사춘기 이전에는 크기가 매우 작은 것들이었을 것이다.

▲이메일: mailforwscchoi@gmail.com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성품은 손자녀, 조부모 성품양육에 달려있다

얼마 전 KBS 뉴스팀이 좋은나무성품학교를 방문하여 부모성품교육을 받고 있는 조부모들을 취재했다. ‘조부모 육아 가구 250만 시대’를 조망하는 보도였다. 맞벌이 부부들이 증가하고 사회 환경도 변하면서 양육에서 조부모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2년 말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 자료를 보면 한국의 약 510만 가구가 맞벌이를 하고 맞벌이 가정의 영, 유아 2명 중 1명은 조부모가 육아를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메트라이프 노년사회연구소의 분석 결과 경기 침체와 고령화 추세로 미국에서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이 10년 사이 100만 명 이상 급증하여 인구 통계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조부모가 이처럼 새로운 육아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면서 조부모 양육에 대한 진지한 조명과 교육적 진단이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부모 양육은 ‘격대(隔代)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행해졌다. 격대교육이란 한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모가 손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양육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의 대학자였던 퇴계 이황도 격대교육을 통해 손자 안도에게 삶의 지혜와 덕을 가르쳤는데 그는 44세 때부터 세상을 뜰 때까지 무려 16년 동안 손자에게 125통의 편지를 보내 손자교육에 힘썼다. 조부모 양육을 통해 긍정적으로 성장한 인물은 제 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를 꼽을 수 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는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의 이혼으로 두 살 때부터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자서전에서 그는 “내가 인종에 대해 편견 없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나의 외할머니 매들린 덕분이다. 외할머니는 백인이었지만 편견 없이 흑인을 대했고 인종을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전하며 외할머니에게서 보고 배운 가치관이 현재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총체적 표현이다. 좋은 성품을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요즘 부모들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자녀양육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한국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실태 조사만 봐도 자녀를 기르는 엄마 2명 중 1명이 양육에 혼란을 느낀다고 답했고 5명 중 1명은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고 응답해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하고 복잡한 생활 속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엄마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일 수 있다는 결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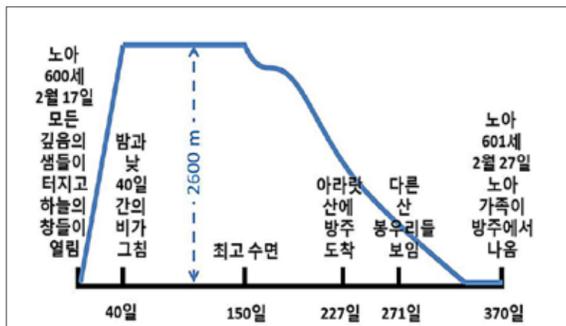
반면 조부모는 세월의 경험에서 축적한 지혜와 경륜으로 손자녀들을 안정감 있게 양육할 수 있다. 더욱이 부모들이 겪는 시행착오와 자녀에 대한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양육에서 한발 물러나 손자녀들에게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행동을 균형 있게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의 탁월한 조력자가 된다. 실제로 미국 유년기에서 10-14세 어린이 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년기에 조부모와 생활한 아이들이 학업성취도 향상(87%)을 비롯해, 자아정체성 향상(90%) 학교 충성률 증가(58%) 위험한 행동 감소(66%)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성품 양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와 좋은 성품을 계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성품양육이란 성품 좋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 부모가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행동으로 돌보아 가르치는 것이다. 이제부터 조부모의 성품양육을 시작해야 한다. 양육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음세대에 좋은 성품의 자녀들을 기르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젊은 부부의 현실적인 육아부담을 해결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의 실마리는 바로 조부모의 성품양육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조부모가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행동을 배우고 훈련하여 손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성품 좋은 리더로 안정감 있게 자라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교의론 도와드립니다.

(516)227-1203, revpakm@gmail.com

노아홍수는 전 지구가 부서졌다가 재편된 ‘격변’ 홍수 때 물은 현재 바다에...2%만 빙하로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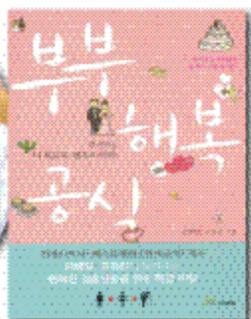
노아홍수 일지
노아홍수는 단순한 40일 간의 홍수가 아니라 창조된 지구의 모습이 완전히 재편성 되는 격변적인 심판 사건이었다.

이는 산의 평균 높이보다 더 깊다. 그러므로 지구표면을 평평하게 고른다면 지구는 약 2600m나 되는 두께의 물로 덮이게 된다. 이 물

이 동물들을 그런 상태로 있게 하였고 지금까지도 그 능력을 갖도록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다.

두란노 세미나

커플 멘토링 스쿨



일 정: 9월 16일(월)
시 간: 10am ~ 4pm
강 사: 금병달 목사 & 김정진 사모
대 상: 평신도, 목회자
등록비: \$40(9월 6일까지 등록시 \$30)
장 소: 미주두란노서원(LA)3층
문 의: 213-235-1068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USB(MP3) 발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본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장영춘 목사)이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성지 예루살렘에서 개최한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의 강의 15편 전체가 USB(MP3) 메모리로 제작됐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0명의 전문 강사들이 성경적 바른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담론과 바른 신학적 접근과 바른 신앙회복에 대한 도전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강의하며, 특히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목회(선교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목회(선교 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3강의와 2회의 제네럴성경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한 강의 당 1시간 15분씩 주어져 총 소요시간 16시간. 특히 기존의 CD가 아닌 명함 크기의 USB로 제작돼 지갑 속 휴대가 가능케 함으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가격은 30달러(국내우송료 포함). 강사는 김성길, 김종준, 장영춘, 권택진, 황의영, 이명섭, 김기열, 김승현, 이민형, 김혜연 목사로서 강의한 순서대로 수록돼 있다.

주은: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 (미국내 우송료 포함)



두란노 세미나
커플 멘토링 스쿨
행복의 공식
일 정: 9월 16일(월)
시 간: 10am ~ 4pm
강 사: 금병달 목사 & 김정진 사모
대 상: 평신도, 목회자
등록비: \$40(9월 6일까지 등록시 \$30)
장 소: 미주두란노서원(LA)3층
문 의: 213-235-1068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USB(MP3) 발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본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장영춘 목사)이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성지 예루살렘에서 개최한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의 강의 15편 전체가 USB(MP3) 메모리로 제작됐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0명의 전문 강사들이 성경적 바른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담론과 바른 신학적 접근과 바른 신앙회복에 대한 도전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강의하며, 특히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목회(선교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목회(선교 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3강의와 2회의 제네럴성경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한 강의 당 1시간 15분씩 주어져 총 소요시간 16시간. 특히 기존의 CD가 아닌 명함 크기의 USB로 제작돼 지갑 속 휴대가 가능케 함으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가격은 30달러(국내우송료 포함). 강사는 김성길, 김종준, 장영춘, 권택진, 황의영, 이명섭, 김기열, 김승현, 이민형, 김혜연 목사로서 강의한 순서대로 수록돼 있다.
주은: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 (미국내 우송료 포함)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동부교계 게시판



담임목사 청빙

뉴욕실로암장로교회(담임 김종덕 목사)가 후임목사를 청빙한다. RCA교단 소속인 동 교회는 정규신학교(M.Div) 졸업증명서, 목사안수증, 이력서, 자기소개서, 목회계획서, 최근 영상 한어설교 2개, 영어 설교 1개 등을 보내야 한다. 마감은 12월 31일.
▲문의: (347)419-2929(김인규 장로)

2013 아틀란타연합교회 목회자 리더십 및 비전 컨퍼런스

2013 아틀란타연합교회 목회자 리더십 및 비전 컨퍼런스가 10월 7일(월)부터 9일(수)까지 아틀란타연합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정인수 목사 외 본 교회 목회자이며 참가대상은 목회자와 사모. 회비는 일인당 50달러이며 신청마감은 9월 28일(토)까지.
▲문의: (770)605-1921 권혁래 전도사, (770)939-4673 김윤수 간사

뉴저지교협 'EM 목회자 영성 수련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상현 목사)가 제26회기의 마지막 행사로 주최하는 'EM 목회자 영성수련회'가 9월 9일(월)부터 11일(수)까지 라마나웃 기도원에서 열린다. "거룩한 짐"(A Glorious Burden)이라는 주제로 강사는 다니엘리 목사(Compass Fellowship Church). 참가비는 없다.
▲문의: (201)335-7357, 647-7766

뉴욕원로목사회 9월 월례예배

뉴욕원로목사회(회장 김용해 목사) 9월 월례예배가 12일(목) 오전 10시30분 합창연습 후 11시부터 시작된다. 장소는 뉴욕로즈린한인교회(담임 김사무엘 목사). H-마트 주차장(156 St. Northern Blvd.)에서는 오전 10시에 교회 밴이 출발한다.
▲문의: (516)626-9191

뉴욕병원선교회 추석맞이 효도잔치

뉴욕병원선교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주최하는 추석맞이 효도잔치가 14(토)일 오후 2시부터 뉴욕 롱아일랜드 한국요양원에서 개최된다. 국악, 사물놀이, 색서폰 연주, 부채춤, 장고춤 외 기타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송편을 비롯한 한국음식이 제공된다. 선교회는 후원자 및 당일 도우미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914)393-1450

이노비 베네프 콘서트 및 미술전시회

이노비(대표 강태욱) 4회 베네프 콘서트가 9월 28일(토) 오후 7시 30분에 맨해튼 프리미어 디어터(316 E 91st St. New York)에서 열린다. 티켓가격은 VIP 120달러(만찬포함), 일반 30달러, 회원 20달러. 피아노 나경은(뮤지컬리더), 이혜정 소프라노, 김하나 메조소프라노, 최원휘 테너, 이요한 바리톤이 출연한다. 2부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로 유명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디즈니 뮤지컬 라이온킹, 인어공주 등의 노래가 공연된다. 서해선 뮤지컬리더, 싱어 Justin DeWolf, Esther Kong, Paul Sandberg, Haeji Shin, 연주자 Christian Stahr(키보드), Micah Joel(베이스), Sungku Lee(드럼). 이외에 SVA, PARSONS, FIT, PRATT 등 뉴욕의 4개의 미술학교 한인학생회와 뉴욕예술대학교연합단체 KANA가 함께 하는 학생 작품전시회가 열린다. 티켓문의: Becon.EventBrite.com.
▲문의: (212)239-4438

뉴욕목사회, 성지순례 위약금 전액 부담

이집트 사태악화로 일정취소 따라...개인당 100달러

뉴욕목사회(회장 최예식 목사)가 2013년 사업으로 계획했던 성지순례를 취소함에 따라 이로 인한 위약금은 뉴욕목사회가 부담하기로 최

종 결정했다. 목회자 성지순례는 뉴욕목사회가 중소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준비한 2013년 대표적인 사업으로, 최근 이

집트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취소된 것. 뉴욕목사회는 그동안 여행사 측과 여행 가능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여행불가'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목사회는 긴급임원회에서 여행 취소를 결정하고 지난달 23일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통보했다. 예약 취소로 인한 개인당 위약금은 100달러. 최예식 목사는 "목사회가 애당초

개인당 500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던 취지를 살려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로 했다"며 "모든 위약금은 목사회가 감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목사회는 총 4800달러를 위약금으로 물게 된 셈이다.

목사회의 최종결정에 신청자들은 위약금에 대한 부담은 없어졌지만 여행이 취소된 데에 대한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당초 뉴욕목사회는 2013년 9월 29일(주)부터 10월 11일(금)까지 48명의 목회자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성지순례를 계획했었다. 개인당 총경비 2,400달러 중 1인당 1,900달러를 내고 참가자 전원에게 목사회가 500달러를 지원하기로 추진해왔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회협장 김중훈 목사(맨 오른쪽)와 탁구대회 수상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제21회 뉴욕한인탁구대회 교인 대거 참석
7개주에서 40팀 참가...현정화 감독 사인회도

노동절인 9월 2일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 베들레헴 성전에서 열린 제 21회 뉴욕대한체육회장 배 한인탁구대회가 뉴욕교회협 김중훈 목사와 뉴욕대한체육회 전창덕 회장 등 뉴욕일원의 교계와 체육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총 개인 212명, 단체전 40팀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룬 이번 대회에서는 워싱턴탁구협회(전준중)는 26명의 선수와 응원단이 대거 참석하고 시애틀에서도 참가하는 등 전 미주에서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단체전은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 필라, 보스턴, 워싱턴, 메릴랜드와 시애틀 등 7개주에서 모두 40팀

이 참가했다. 경기에 앞서 박맹준 목사(뉴욕신일교회)가 경기를 위해 기도했고 김중훈 목사, 안창의 목사, 뉴욕대한체육회 전창덕 회장의 축사, 현정화 감독의 인사, 양창원 회장의 광고의 순으로 진행했다. 우승은 첼피온조 임우빈, 일반부 A조 박흥민, B조 최은선, C조 김산, D조 김근나, 주니어A조 박영서 등.

한편 88서울올림픽복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국민영웅이 된 현정화 감독의 사인회가 펼쳐지기도 했다. 현 감독은 이날 수건, 유니폼, 탁구라켓 등에 친필 사인을 해주며 관중들을 즐겁게 했다. (유원정 기자)



The Call 에서 청소년들이 바다위생을 하고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퀸즈장로교회 THE CALL 청소년 부흥집회

퀸즈장로교회 중등부가 주최한 “THE CALL” 청소년 부흥집회가 지난 31일 열렸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전1:20) 주제로 열린 부흥집회는 9월 학교로 돌아가는 청소년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해 각자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학생들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됐다.

특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게임과 토너먼트가 있었다. 테이블 축구, 농구, 더지볼 등이 진행됐으며 저녁식사와 친교 후 7시부터 집회가 시작됐다. 설교는 정도영 목사가 맡았다.

노네임 앙상블, 이노비 후원음악회 마련

9월 1일 주일 6시, 그레이트 초중고(5-10학년) 학생 8명으로 이루어진 '노네임 앙상블'(No Name Ensemble)이 문화복지 비영리단체 이노비(대표 강태욱)의 작은 후원음악회를 마련했다.

노네임 앙상블은 이노비의 주니어 스태프로 여름동안 열심히 봉사하던 애솔리유의 아이디어로 이 콘

서트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콘서트에는 총 1,210달러의 티켓판매, 후원금이 모금돼 전액을 이노비에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앞으로 이노비가 양로원, 병원입원환자,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 음악회를 준비하는데 쓰일 계획이다. (기사제공: 이노비)



공연 후 이노비 봉사상을 전달받고 기념촬영 했다.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전 세계에는 2만 여명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복음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현재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 따르면 아시아권에 1만3천 869명, 유럽에 1천988명, 아메리카권에 3천124명, 아프리카 중동권에 1천907명 그리고 오세아니아 태평양권에 713명이 파송돼 있습니다.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세계선교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아울러 신문 보내기로 문서선교에 동참하도록 애독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미주크리스천신문 선물'은 일년 내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후원희망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	
기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 약정 후원 년수에 O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원방법: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우송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는 100달러).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Pay to Order : The Korean Christian Press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KYVC, 제1회 자녀사랑 찬양제 연다

남가주중부교협 주관 9월 22일 감사한인교회에서



청소년비전센터 김영대 이사장이 제1회 자녀사랑 찬양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배우 허준호 집사 찬양과 간증의 밤 집회에서 허준호 집사가 찬양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허준호 집사 찬양간증 집회

‘The Story’ 주제로... “하나님이 써주심에 감사”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배우 허준호 집사의 찬양과 간증의 밤 집회 ‘The Story’를 지난 30일 오후 7시30분 성황리에 개최했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 한기홍 목사의 인사말과 기도에서 이어 무대에 오른 허준호 집사는 박진진 교수(MI교수)와 찬양곡과 가요를 함께 부르며 그의 삶과 예수님의 만남 등에 대해 간증했다. 허 집사는 “이 세상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것을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운을 댄 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의 나 자신의 삶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허장강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행동이 자유롭지 않았다. 허준호는 없었고 허장강 아들로 인식이 되는 것이 불만이었”고 언급하며 “아버지 밑에서 불편 없이 잘 살았다. 우리가족은 암자를 지을 정도로 철저한 불교집안이었으며 예수를 모르던 집이었다”고 회상하며 “내 꿈은 단지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니 그 어떤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거룩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었

고, 배우로서의 롤 모델은 윤복희 권사였다. 어느 날 윤복희 권사와 뮤지컬을 함께 할 기회가 생겼다. 윤 권사는 나를 아들처럼 대해주셨다. 그러나 20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다”고 말하며 “2005년 예수를 만난 후 20년간 윤 권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고, 그 기도는 나 자신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기독교인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알지 못했지만 복음을 깨닫고 는 주안에서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됐다”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안 뒤에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된 자신을 소개하면서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집회를 다니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써 주심을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허준호 집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를 위해’, ‘거위의 꿈’ 등을 불렀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인청소년 비전센터(KYVC, 대표 김영길 목사, 이사장 김영대 목사)가 주최하고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회장 박소건 목사)가 주관하는 제1회 자녀사랑 찬양제가 오는 22일(주일) 오후6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개최된다.

김영대 이사장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큰 관심을 일으키는 찬양제가 되었으면 한다”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이번 성가 찬양제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KYVC는 지난 2007년 1월에 설립돼 지금까지 여러 교회와 학부모들과 목회자들이 도움으로 청소년들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 KYVC는 매주 한차례 남가주지역의 7명의 사역자가 5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300여명의 학생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KYVC는 비행과 마약, 그리고 여러 사회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꿈을 심어주기 위해 ‘해피라이프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고, ‘Dream&Job Fair’로 일컫는 청소년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명사

들을 학교로 초청해 강의를 열어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모임과 3.1절 한글로 글짓기 대회, 경찰서와 연계해 마약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부모들의 협찬으로 펼쳐왔다.

이번 찬양제는 내년부터 KYVC 사역을 확대해 14개 고등학교에 1000명의 학생들을 찾아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금과 뜻을 모아가는 취지로 열린다.

비전센터의 일선사역자 이진희 목사는 “아이들이 경제적인 것과 미래에 대한 부담이 많다. 요즘 변화를 느끼는 것은 남학생들의 참여가 많아지고 있고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찬양제에는 교회 성가대 및 합창대 등 총 11개 팀과 어린이합창단이 참여하게 된다. 참가팀으로는 감사한인교회, 라팔마연합감리교회, 아름다운동산교회, 사우스베이한인교회 등 한인교회와 미국교회인 뉴라이프교회, 레위합창단, 원로목사중창단, 카이로스워십댄스팀, 에브라카합창단, 황승호 전도사가 이끄는 어린이 복음선교단과 어린이합창단 등이다.

앞으로 KYVC는 청소년들의 재능 개발을 위한 ‘유스비전 콘테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총장 정동은 목사(714-904-6298)에게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나침반교회에서 열린 3인3색 찬양콘서트에서 무대에 오른 지명현 목사, 황국명 목사, 최명자 사모가 이날 모인 청중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다

나침반교회 3인3색 콘서트

황국명, 최명자, 지명현 찬양사역자 출연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는 다윗과요나단 황국명 목사, 최명자 사모, 소리엘 지명현 목사 등 3명의 찬양사역자들의 3인3색 콘서트를 지난달 30일 저녁 8시에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는 황국명, 최명자, 지명현 등 찬양사역자들이 무대에 각각 올라 주옥같은 찬양곡을 불러 큰 박수를 받았으며, 3명이 함께 찬양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황국명 목사는 “30년간 찬양사역을 해왔으며 한인교회들이 있는 지역은 어디든지 가려고 했다. 그러나 미처 가지 못한 교회와 나라가 있다”고 말하며 “경제적인 여건 등

으로 인해 사정상 우리들을 초청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 그런 곳에 찾아가 함께 찬양으로 은혜를 나눌 수는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러한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여기며 지난 2007년부터 3인3색 콘서트를 해오고 있다. 저희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경엽 목사는 “오늘 콘서트는 영혼에 깊은 터치가 있었던 축복된 시간이었다. 찬양의 영역 더 필요하고 더욱 더 힘을 다해 찬양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회게 게시판



커플 멘토링 스쿨 개최

미주 두란노 세미나팀과 FBM(가정을세우는사람들)이 공동 주관하는 ‘커플 멘토링 스쿨’이 9월 16일(월)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두란노서원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에는 ‘연애공식’ ‘부부 행복공식’의 저자 금병달 목사·김정진 사모 부부가 강사로 나서며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한인 이민가정을 돕기 원하는 이들을 훈련하게 된다. 한편 FBM은 커플대학과 연계해 가정상담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213)235-1068

이단대책 예방세미나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대표 한선희 목사)에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란 주제로 9월 11일(수) 오후 7시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의 전도방법, 피해상황, 미혹되지 않는 방법 및 색출해내는 방법 대책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의: (323)466-1234, (213)484-2574

새장로교회 설립 감사예배

새장로교회(담임 원영호 목사)는 9월 8일(주) 오후 4시 새장로교회 본당(970 N. Virgil Ave)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가 되어 온 누리에 복음을 전하는 섬김과 섬의 공동체’라는 사명 선언문을 읽고 설립 감사예배를 드린다.

▲문의: (213)700-4474

미주총회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모집

미주총회대학교 신학대학원(총장 정고영 박사)이 2013년도 가을학기 학생모집을 실시한다. 입학서류는 입학원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신앙고백서, 사진 2매이며 9월 9일(월) 저녁 7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323)722-3913, (213)595-3912

LA지역 커피브레이크 인도자 훈련

LA지역 커피브레이크 인도자 훈련이 하나로커뮤니티교회(담임 양성필 목사) 친교실에서 9월 7일(토)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갖는다. 강사는 박종선 사모(북미지역 한인커피브레이크 대표) 외 2명이며 회비는 40달러(교재 및 점심식사 포함).

▲문의: (626)912-6600

“실버미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

실버선교교회 설립예배, 담임 이다니엘 목사

실버선교교회(담임 이다니엘 목사) 설립예배가 1일 오후 3시 타운내 만리장성 식당에서 열렸다.

이다니엘 목사는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교에서 노인학을 전공했다. 노인학을 공부하면서 미주지역에 노인들을 위한 실버미션을 하는 곳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실버미션은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이라 여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 사역을 위해 작년 5월부터 1년간 고민하며 기도로 준비했다. 실버미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이라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기에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버선교교회 창립예배에서 이다니엘 목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을 밝혔다. 이날 설교는 이다니엘 목사가 ‘노년기를 발전시켜 청년기로’(고후 4:16-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여기에

《검은 것이 아름답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해오고 있는 이동관 선교사의 이야기. 초년병 선교사의 좌충우돌하던 경험과 아프리카의 실제 현장을 맛드려며 가졌던 소박한 고민들을 담았다. 한 젊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부끄러움도 솔직하고 백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꾸밈없이 풀어진 진솔하고 순수한 고백의 선교 이야기다. 그리고 '가치있는 인생을 위한 도전'이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책이다.
* 이동관, 박형란의 케냐 사할 이야기 www.kensarang.com
이동관 지음 / 264면 / 12,000원

《너와 함께 가라》
캘리포니아 Lake House(기도의 집) 대표로 있는 김정숙 목사의 간증집. 저자는 캘리포니아 호수 엘시노에서 지치고 목이 말라 기도의 두레박으로 생수를 퍼 올리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든 울 수 있는 따뜻한 기도처를 섬기고 있다. 한 사람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이 책은 진정한 위로가 흐른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그 사랑으로 인해 견딜 수 있었던 시간을 따뜻하게 풀어내었으며,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앞에 당황하며 주님을 부를 때 손 잡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의 동행 하심의 여정을 담고 있다.
김정숙 지음 / 264면 / 12,000원

《성경 핵심 요절 2500》
'거리 전도 대상'으로 유명한 정동제일교회 운용구 권사의 호크마 시리즈II.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골 10:10)는 약속의 말씀을 체험한 저자가 성경 핵심 요절 2500여 개를 신앙의 원리, 교회 생활, 생활 문제 해결, 영적 승리의 비결, 가족 신앙 5개 단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했으며 또 각 단원마다 소주제를 넣어 삶의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는 새 생명, 새 소망, 새 비전, 새 능력, 새 영감을 받아 만든 책으로 말씀 암송과 성경 이해에 유용한 책이다.
운용구 지음 / 544면 / 20,000원 / 시락판

《다니엘 전도법》
목회자라면 누구나 갈망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전도이다. 이 책은 24년의 목회 생활 동안 전도로 몸부림쳐 온 저자가 '다니엘 전도법'으로 교회를 부흥, 성장케 한 교회 개척 수가 및 전도법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이지만 때론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전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게 된다. 전도 문제로 목회와 신앙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적이며 구체적인 전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추영순 지음 / 264면 / 11,000원

《성경 핵심 요절 2500》
'거리 전도 대상'으로 유명한 정동제일교회 운용구 권사의 호크마 시리즈II.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골 10:10)는 약속의 말씀을 체험한 저자가 성경 핵심 요절 2500여 개를 신앙의 원리, 교회 생활, 생활 문제 해결, 영적 승리의 비결, 가족 신앙 5개 단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했으며 또 각 단원마다 소주제를 넣어 삶의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는 새 생명, 새 소망, 새 비전, 새 능력, 새 영감을 받아 만든 책으로 말씀 암송과 성경 이해에 유용한 책이다.
운용구 지음 / 544면 / 20,000원 / 시락판

www.qumran.co.kr 서울 중로구 이화동 184-3 Tel. 02-747-1004 쿼란출판사

[미리보는 주요 교단 총회]

① 예장 합동·고신·합신

예장 합동과 고신, 합신은 조선 예수교장로회라는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교단으로 한국교회의 대표적 보수그룹이다. 이들 3개 교단의 9월 총회를 보면 한국 보수교계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규정돼 있는 노회의 정회원(현의인 제출)을 실행위원회가 반려한 것은 그 자체가 초법적 사건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여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다락방 이단 해체에 따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관련

교단	날짜	주최	장소
예장합동	9월 9-11일	그리스도인 사명을 나누는 사람들	서울 연성교회
예장고신	9-13일	-	천안 백석교회
예장합신	23-27일	-	수원남대교회 신복스
예장고신	23-27일	복음의 길 3000만 미션 운동	천안 고신연맹교회
예장합신	18-22일	-	천안 기성연맹교회
예장고신	9-12일	변화와 생명의 대안	대구노회 새원교회 수련관
기성	23-26일	-	천안 소년 불교학교(기독교)
기성	24-27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새날이라는 교회	고신 성공교회
기성	10월 22-25일	-	대전
부흥회	9-11일	생명의안으로	부산 제일침례교회

“고려신학대학원을 고신대에서 독립시켜 대학원대학교로 만들어 줄 것”을 현의안으로 내놓았다.

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임원과 총무가 심사하고,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세습 금지에 대한

현의안이 올라와 있으며 WCC 부산총회 반대 성명 채택여부와 차별금지법 반대도 논의할 예정이다.

수년간 끌어온 고신과 합신 양교단의 통합문제는 다소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신 측 합동추진위원회는 이번 총회에 ‘양교단의 총회 총대는 두 교단이 같은 숫자로 하고, 5년 후에는 완전히 합동하자’는 안을 내놓는 등 다소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합신 측은 중서울노회가 ‘합신과 고신 양 교단이 각각 정치적·문화적 차이가 크고, 합동 추진 과정에서 교단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험이 많다’며 ‘합동 추진을 중지하고 우호적 교단으로서의 관계만 유지할 것’을 현의하는 등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 뿌리서 나온 한국 대표 보수교단 2013년 9월 총회, 보수진영의 현주소 필드

올해 예장 합동 총회는 용역동원, 가스총 등장, 기습적 파회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지난해 97회 총회의 연장선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실행위원회가 97회 총회와 관련된 노회 현의안을 모두 반려하고 관련인사들을 징계키로 했기 때문이다. 당시 총회와 관련된 현의안은 총무해임 및 처벌, 총회장 퇴임 및 증경총회장 명단에 서 영구사제, 총회 파행기간 중 제작된 ‘총회소식지’ 특별감사 등이 다. 특히 장로교 헌법상 명백하게

인사 조사처리, 한기총 탈퇴안, 세계교회협의회(WCC) 선언문 동참자 처리, 전력 피크제 폐지 건의, 차별금지법 대책, 총회 산하기관장까지 절충형 선거제도 적용, 실행위원회 폐지 등도 현의돼 있다. 예장고신 총회에서는 고신대와 고려신학대학원의 분리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전라노회는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고신대의 존립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신대원을 대학 산하기관으로 둘 수 없다”며

북한선교위원회는 총회차원에서 북한에 피랍돼 2007년 사망한 고(故)김동식 목사의 유해송환을 추진해 줄 것을 청원했다. 이 밖에 ‘세습반대법 제정안’ 통과 여부와 WCC 부산총회에 대한 입장, 교단지인 기독교보 사장 공권선거 문제 처리방안도 논의 될 예정이다. 예장 합신 총회의 주요 현안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가입여부 결정이다. 합신 측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장시간 논의 끝에 한기총 탈퇴를 결의했고, 한교연 가입

“연내 연합성결인대회 연다”

기성-예성-나성, 한국교회 연합 일치에 큰 기여전망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는 최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임원회를 열어 연합성결인대회와 연합부흥성회, 강단 교류 등을 통해 회원교단간 교류·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성연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나성) 등 3개 성결교단의 연합기관이다. 한성연의 이같은 활동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원회는 지난 5월 총회에서 결의한 연합성결인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먼저 각 교단의 큰 교회에서 한성연 주최로 성결인대회를 열고 그 여세를 몰아 연합성결인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논의한다. 이번 연합성결인대회는 그동안 임원 위주의 교류에서 나아가 평신도까지 아우르는 연합과 일치를 이루자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기성과 예성 중심으로 진행해온 연합부흥성회도 한성연 차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성연은 내달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살기념공식기도원에서 연합부흥성회를 열 계획이다. 오는 11월 18-23일로 예정된 호주복음화연합대성회도 3개 교단 연합으로 개최한다. 강단 교류도 실시한다. 교단장이 먼저 타 교단에 강단에 서고 이어 부총회장 등 임원과 교단 부총회원들이 강단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나세웅 한성연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등 교계 안팎이 어수선하다”며 “기성, 예성, 나성이 하나 되는 모습

을 통해 이런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성은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 개최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기성은 최근 열린 임원수련회에서 WCC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가입하지 않은데다 NCCK 탈퇴 문제로 예성과 분열된 뒤 아직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WCC 총회에 공식 참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교단 차원에서 WCC 총회 개최를 반대하지는 않기로 했으며 대회 주관이나 개인 자격으로 대회 준비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신사참배 강요 일본은 지금 벌 받고 있다”

일본 미와 노부오 목사, 미래목회포럼에서 역설

미래목회포럼은 설립 10주년을 맞아 30일 서울 태평로 프레젠테이션에서 포럼을 열고, 한·중·일 목회자 100여명을 초청해 ‘동북아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대표 오정호(대전세로남교회)목사는 “동북아 지역은 대립과 반목, 빈곤과 전쟁의 역사에서 벗어나 화해와 상생, 공영과 평화를 구현하는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다”며 “한국은 국제적 갈등의 완충지로 중간조절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특히 한국교회는 동북아 지역 협력과 공존공영의 시대를 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일본 카비난도 체플의 미와 노부오 목사가 ‘일본교회의

현실과 동북아 교회협력방안’에 대해, 중국선교협회 회장 유전명(한성중화기독교교회)목사가 ‘중국교회의 현실과 미래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인정호 목사는 ‘한국교회와 분단, 북한구원과 교회의 협력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미와 노부오 목사는 “과거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는 한반도 전국에 신사를 만들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참배를 하지 않은 이들을 박해했다”며 “특히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이 제도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고, 한국의 교파가 분열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 대가로 하나님은 일본을 벌하고 계

신다. 복음 전파가 잘 되지 않는 ‘복음의 불모지’가 되게 하셨다. 일본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한국에 사죄해야 한다”며 “일본교회의 역할은 과거 일본 정부가 한국기독교에 취한 가혹한 탄압을 기억하고 반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인 유전명 목사는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도시인구는 1998년 3억8000만명에서 2010년 6억2000만명으로 급증했다”며 “도시화에 맞춰 중국 현지 교회개척과 현지인 신학 교육 및 사역자 양성을 위해 한국교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목사는 또한 “현재 해외 화교교회 수는 9300여개, 화교 교인수는 210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대부분이 중국신교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물질, 인적 역량이 부족해 단기사역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해외 화교교회와 장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평화를 위한 선교는 다방면의 협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한 교회나 한 선교단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고 사역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동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장호 목사는 “현재 한국이나 제3국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중국 내 남아있는 탈북자는 15만에서 20만 명에 이르고 한국에는 약 2만5210명의 탈북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는 20대가 27%, 30대가 31%로 가장 많고 무직과 노동자가 80%, 전문직이나 관리직이 4%다. 대졸은 4%, 전문대졸은 7%, 중·고교졸은 70%에 이른다”며 “이는 북한주민 구성물의 축소판과 같다. 북한주민과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효율적인 샘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9월 총회 앞둔 장로교 주요 5개 교단

차기 총회장·부총회장 후보에 설문조사

주요 장로교단의 차기 지도부 대다수는 갈라진 교회연합기구를 조속히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 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는 영성회복과 신령일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 교회에 화합과 일치, 교회갱신 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일보의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과 통합, 백석, 고신 및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등 내달 정기총회를 앞둔 장로교 5개 교단의 차기 총회장 및 부총회장 후보 11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예장통합 차기 총회장인 김동업 목사는 설문

에 응하지 않았다. ◇“한기총·한교연 통합 나서라”=총회장 및 부총회장 11명 중 9명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의 단일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예장통합 부총회장 후보인 공병의 정영택 목사는 “당초 하나였던 단체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 “기득권을 버리고 서로 조금씩 양

교회 연합과 일치, 건강·신뢰성 회복

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장고신 부총회장 후보인 신상현 김철봉 목사와 차기 기장 총회장인 박동일 목사, 부총회장 단일후보인 황용대 목사 등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예장합동 차기 총회장인 안명환 목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예장백석 총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인 장중현 목사는 단일화를 전제로 ‘양 기관 간에 대화와 만남 등 협력 활동부터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장고신 차기 총회장인 주준태 목사는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최근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의회 등 교계 일각에서는 양 기관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영성 회복’으로 교회 건강·신뢰 되찾아야=차기 교단 지도자들 중 절반 가까이는 한국교회 건강성 회복 방안으로 성경 말씀과 예배를 통한 영성회복을 꼽았다. 예장고신 주준태 목사는 “교회 안팎으로 교회 위기론과 개혁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영성”이라고 강조했다.

예장합동 부총회장 후보인 김영우 목사는 “교회지도자들이 먼저 철저히 각성해야 한다”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 탓이오’ 하며 통렬히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인 백남선 목사는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목회자부터 ‘신령일치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장의 황용대 목사는 ‘도덕성 회복’을 촉구했다. 이 밖에 예장백석 장중현 목사는 “신학교에서부터 성경운동, 기도운동, 신학교복운동, 나눔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기장의 박동일 목사는 ‘정의와 공의의 실천’을 교회 건강성 회복의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각 교단의 주요 현안은 교단 사정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예장백석은 예장개혁(총회장 전하라 목사)과의 교단 통합이 최우선 과제였다. 올해 교단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기장의 경우, 전도와 선교를 통한 교단 부흥에 총회장단의 관심이 컸다. 지난해 총회에서 파행상태를 빚으며 비상대책위까지 꾸렸던 예장합동은 ‘교단 내부 화합’과 ‘교단 지도력 회복’을, 예장고신은 재정개혁 문제 등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예장통합은 ‘성장 정체의 극복’ 등을 중요한 과제로 판단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현안인 종교인 과세 및 목회대물림방지법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 많았다. 총회 및 임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총대들을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발언은 가급적 삼가는 분위기였다.

정부가 과세 방침을 정하고 입법예고 중인 ‘종교인 과세’에 문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은 예장고신의 주준태 목사와 기장의 황용대 목사 등 2명에 불과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명, 나머지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일부는 9월 총회나 교계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과세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후보들도 있었다.

모나리자 스킨케어

1회 서비스 가격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비타민+고주파	1회 \$35	10회 \$300
여드름	1회 \$40	10회 \$350
출기세포	1회 \$120	10회 \$1,000
아쿠아솔루션	1회 \$100	10회 \$800
늘어진팔뚝 슬림	1회 \$30	10회 \$250
배경락	1회 \$35	10회 \$300
등경락	1회 \$40	10회 \$350
전신경락	1회 \$120	10회 \$1,000
하지정맥 (Special 기계)	1회 \$45	10회 \$400

*영구화장 최신기법 - 아이라인/눈썹라인/입술라인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 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제 23차 세계오순절대회 폐막

“오순절 성령 중심으로 영적·선교적 활력 찾자”

“우리는 오순절교인입니다(We're pentecostal people)”

전세계 오순절 교회 3000여명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제23차 세계 오순절 대회(PWC-Pentecostal World Conference)가 지난달 30일 폐막했다. 지도자들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갈보리 컨벤션센터에서 4일간 급변하는 시대 속 영성·리더십 회복과 차세대 육성 방안을 찾았다.

PWC 대회는 부흥집회를 방불케 했다. 사무엘 로드리게스(미국 히스패닉 크리스천리더십 콘퍼런스 대표), 윌리엄 윌슨(임파워21 대표), 맥 휴더드 밀스(가나 라이트하우스 체플), 글렌 부리스(미국 포스퀘어교회) 목사 등은 성령 충만과 심자가 복음의 중요성을 뜨겁게 외쳤다. 메시지가 마무리될 때마다 1000여명이 강단 앞으로 몰려나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중

보기도하는 장면은 장관이었다.

로드리게스 목사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 기쁨 부으심은 삶의 변화는 물론 교회 변형, 영적 성장을 낳는다”면서 “이제부터 ‘나의 능력이신 주님을 통해 더 이상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입을 열어 선포하라”고 강조했다. 윌슨 목사는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다음세대에 성령을 가르치고 설교해야 하며, 그들이 성령세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 목회자가 먼저 영적 부도의 심정을 가져야 하며 건강한 리더십, 성령 중심의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9일 열린 글로벌 리더십 포럼에선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과 이슬람 세력의 확장 속에서 오순절교회의 대처 방안을 모색했다. 데이비드 웰스 캐나다 오순절협의회 총무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개신교인의 80%는 매일 성경을 읽지 않고 있으며, 23%만 ‘교회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26%는 ‘교회에서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15%는 교회에 비판적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이런 현상은 결국 복음에 대한 확신 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오순절 성령 중심으로 영적·선교적 활력을 찾을 때만 회복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삭 부르거(앨솔리틱 페이스 미션 대표) 목사는 “20세기 전세계 기독교는 32~33%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으며, 비슷한 시기 이슬람도 18~22% 성장했다”면서 “최근 들어 서구 국가에서 이슬람화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이민과 높은 출산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순절교회가 견지해야 할 자세는 이슬람도 역시 구원의 대상으로, 예수로만 채워지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PWF(오순절 세계협회) 임원회는 프린스 그루넬(말레이시아 갈보리교회 목사) 회장의 임기를 3년 연장키로 했다.



방지일 칼럼 (6)

“본대로 들은 대로”

교회의 바른 성장

생명체는 자란다. 그 목적은 열매를 맺는데 있다. 열매를 맺어선 그 종족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하겠다.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생명체라 교회는 성장한다. 그 성장이 어느 면이나 하면 물량적으로 사람의 수가 늘고 현금이 많아지는 일, 이런 면이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런 물량면의 성장을 발전으로 볼 수도 있다.

담임목사야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담임한 교회가 자라기를 바라지 않는 이가 있을 수 없다. 교회의 종족을 맡은 사람도 때로 옆 교회와 비교하여 또 교회는 근년에 자라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한 듯 할 때는 흔히 그 책임을 목회자에게 돌린다. 그렇지 않음도 아니나 그렇게만 생각해서 안 된다. 나는 때로 출국하였다 돌아오면 혹 교회장로들이 인사 겸 전화가 걸려온다. 그 말 도중에 모교 교회는 눈에 띄이게 발전했는데 우리교회는 그렇지 못한 말하면서 이는 우리교회 목사가 그 책임을 못하는데 있다함이 노골적은 아니니 그 말속에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책임을 같이 져야 함에도 책임감 없음이 크게 유감이고 또는 교역자를 원망하는 눈조도 매우 못마땅하다. 또는 그 성장이 물량면의 만족을 찾는데 유감이다. 양보다 질의 성장은 사려조차 안하는지, 못하는 것도 크게 유감이다. 어느 교회 실례를 들어보자.

담임목사는 은퇴할 때가 되어 은퇴하였다. 후임교역자를 택하게 됐다. 청빙위원회가 선발 조직되었다. 후임교역자를 택하게 된다. 그 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발전을 원하는 분이 좀 크게 2배 3배 발전시킬 목사를 택하는 기준을 말함에 한 위원은 ‘그런 급성장이 우리의 표준이 되는가? 우리 교회는 꾸준히 항상 성장일로로 나가는데 마치 은퇴하신 이는 교회성장에 침체를 가져오신 분으로 생각한다면 오래 목회하여 오신 또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큰 실례가 되는 사교요 또 꾸준히 교회노선이 믿음직하고 아름다웠는데 이제 급성장을 수배로 물량을 원하는 생리현상도 그 성장과정의 비정상일 때는 병든다 할 것이 아니요’ 하는 의견이 대두되었다는 말이었다.

인체의 성장도 신진대사의 순위가 순조로울 때 알맞은 성장으로 건강체로 성장함이다. 급성장은 신체에 비정상 요소가 나타남이라 건강체가 되지못함 생리현상이다. 주님의 몸 된 유기체인 교회 성장에 있어서 비정상 성장은 건전한 성장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게 된다. 꾸준한 신진대사를 일으키는 성장이어야 한다. 더욱 물량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이 있어야 건실한 교회로 성장될 것이다. 교회들이 양적 성장을 바라고 위주함은 크게 위험한 착상이다. 꾸준하게 균형있게 자라되 물량 면보다 질적 성장에 중추하여야 할 것이다.

질적 성장에는 적당한 영양의 보급이 되어야 바른 성장을 하게 된다. 그 영양이란 말씀이니 말씀을 고르게 먹어 영양실조를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고른 영양은 주님의 구속의 실체를 내 것으로 삼는 것이다. 심자가 믿는다는 함은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진 일이다. 그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하여라. 그 심자가 믿음이 나도 그 심자가 흡수 동참함이다. 그의 부활을 믿음이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됨이 내 소유가 됨이라 죄 문제는 완전 해결되고 그의 생명이 내 생명으로 화함이다. 그는 승천하셨다. 부활하신 몸은 영체이다. 영체로 부활하시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내게 자기 이름을 주시고 승천하셨다. 그의 이름은 지성수에 흡입하는 패스에 해당한다.

그의 승천이 내 승천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특권이 내게 부여되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대언자 내 변호사로 끊임없이 절대 주권자 앞에서 내 무죄를 변호하신다. 아니 죄인인 저들을 대신해서 “내가 그 형은 받았습시다” 변호하신다. 무죄의 변호가 아니라 속죄의 변호이다. 그의 승천을 믿는 나는 그 변호를 아바 아버지 앞에 직접 담대하게 출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내 실제가 남았으니 그는 다시 오신다. 영체로 다시 오셔서 내 내전한 이 몸은 그의 영체로 변해 하신다(빌3:21). 이런 복음적 내용이 우리 교회 성장의 영양이 된다. 이 영양을 바로 받기만 하면 영양은 충족하여 바른 성장을 하게 된다. 모를지기 자기 교회로서 이런 성장을 기억하면서 목회자와 일치가 되어 건전한 발전을 기할 것이다.

(1996년, 1권)

리빙스턴 선교사 탄생 200주년 기념

잠비아 리빙스턴기념장로교회 특별예배

지난 1일 아프리카 잠비아 리빙스턴시의 리빙스턴기념장로교회에서 영국의 선교사이자 의사이며 탐험가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1813-1873·사진)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예배가 드려졌다. 성도들은 3시간여 예배를 드리며 170여년 전 미지의 땅 아프리카를 찾아 복음을 전했던 리빙스턴 선교사처럼 아프리카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작은 불씨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스 간다 윌리엄 리빙스턴기념장로교회 목사는 설교에서 “선교사로서 그가 한 일은 아프리카의 길을 연 것”이라며 “그가 만든 지도를 따라 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리빙스턴을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한 고마운 선교사로 기억했다. 스티브는 “그의 개척자적인 삶은 지금의 아프리카에 위대한 복음의 업적을 이루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교회 인근 리빙스턴기념박물관에는 리빙스턴이 즐겨 쓰던 지팡이와 옷, 의약품, 총, 책, 가족사진, 그가 다녔던 모자를 표시한 지도 등이 가지런히 전시돼 있었다.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복

음을 전했던 그의 치열했던 삶을 짐작케 했다.

스코틀랜드에서 출생한 리빙스턴은 가정형편 때문에 10세 때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에서 일해야만 했다. 그러나 17세 때 소명을 받고 대학에서 의학과 신학 등을 공부한 뒤 영국 런던전도협회의 파송을 받아 1840년 27세의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로 왔다. 리빙스턴 선교사는 아프리카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노예무역의 처참한 실상을 영국 사회에 알리는 데 힘썼다. 의사로서 원주민들의 질병 치료와 예방에도 적극 나섰다.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말라리아 등 온갖 풍토병에 시달렸지만 덕분에 치료법을 발견하기도 했다. 유럽인으로서 처음으로 잠베지 강, 빅토리아 폭포 등을 발견하고 ‘전도여행기’ ‘잠베지 강과 그 지류’ 등을 출판하는 등 아프리카 중부를 서방세계에 알린 ‘검은 대륙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탐험을 하는 동안 무수한 고난을 당했다. 사자에게 물려 어깨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평생 왼손을 머리 위로 올리지 못했다. 수렁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밀림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다. 열병과 이질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적도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고난을 당연히 짊어져야 할 심자로서 생각하고 참고 이겨 나갔다. 그는 “오직 끝없는 나라와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하신 주님의 말씀에만 가치를 두겠다”며 신앙을 고백했다.

리빙스턴은 영국 왕실로부터 은퇴 후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부했다. 오히려 사랑하는 아프리카에서 죽겠다며 세간의 관심을 피해 더 깊은 숲속으로 찾아 들어갔다. 그의 제자들은 후일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숨겨 있는 그를 발견했다.

리빙스턴을 통해 아프리카 선교는 전환점을 맞이한다.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 처음 선교사가 파송된 것은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였다. 이들은 15세기 무렵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선교를 시작해 서부 아프리카에 선교부를 설치했고 자이레와 앙골라까지 확장했다. 개신교 선교는 1737년, 모라비안 형제단 조지 슈미트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도착한 것에서 시작했다. 19세기 유럽과 북미의 부흥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수많은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활동했다. 아프리카 대륙 중에서도 외지인의 발길이 닿지 않은 오지에서 사역했던 리빙스턴의 이야기는 세계교회에 아프리카 선교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노동자 돕자” 세계교회 손잡아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노동자들을 위해 세계교회가 손잡고 나선다. 영국과 캐나다, 미국 등의 교회들이 다음 달 5일 영국 런던에 모여 의류업종체와 정부에 방글라데시 공장의 임금 인상과 안전대책 확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에큐메니칼뉴스가 29일 보도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다가 인근 의류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해마다 수차례 발생해 직원들이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다카에서 30km 떨어진 사바르의 라나플라자 공장에서 불이 나 1127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치는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다.

그동안 의류공장의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해 온 방글라데시의 교회들은 라나플라자 화재 이

후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돌보는 데 앞장서고 있다. 방글라데시 교회 연합의 폴 사커 총무는 “이곳에서는 사회 정의를 위해 교회가 열정적으로 싸우고 있다”며 “세계 교회의 도움과 지지가 이어진다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성공회가 중심이 된 다음 달 5일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 정의를 요구하는 협약을 제정하고, 소비자들이 의류업체에 방글라데시 공장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실천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영국 성공회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영국 감리회, 네덜란드 장로교회, 영국 연합교회, 옥스퍼드 선교회 등이 협약 초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들은 성탄절 전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실행되지 않으면 방글라데시에 하도급 공장을 둔 의류업체의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존 크리스티 전 총무는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방글라데시 교회와 연합해 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네통 망고 H&M 등 세계적인 의류브랜드의 하도급 공장이 밀집해 있는 방글라데시에는 400만명이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약 200원이다. 영국의 기독교연구센터 에를레시아는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훨씬 더 적다”며 “방글라데시 평균 생활비의 14%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데다 환경도 열악해 1985년 이후 공장 붕괴와 화재로 숨진 노동자만 18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여기서 생산되는 옷들은 대부분 유럽과 북미로 수출되며 한국 일본의 일부 의류업체들도 방글라데시에 하도급 공장을 두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Fuentel) / www.nachimban.org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월-토)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1:30(영성)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영문)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주일 3부예배: 오전 6:00(토)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주일 3부예배: 오전 6:00(토)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영문):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00(화-토)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Holywave: 영어예배) 주일 4부예배: 오후 1:10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수·금·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등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금·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등산성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도예배: 오전 9:30 3부 영어예배: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 오후 12:30(영문) 수·금·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 저녁 8:00 목요일: 오후 4:00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금·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중·고·대 청년부: 오후 7:30(월-토)	새천양교회 담임목사: 변운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금·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손인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2:30(영문) 주일예배 5부: 오후 2:00(영문) 수·금·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2:00(매일) 금요예배: 오후 7:30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주일 1부찬양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금·예배: 오후 7:00(월-토) 금요예배: 오후 8:00(월-토) 고·중·부: 오전 11:00(주일) 중·고·등부: 오전 11:00(주일)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금·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문)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금·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교육부주일예배: 오전 11:0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금·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금·예배: 저녁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새벽 5:30
일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문)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매일) 주일학교: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오전예배: 오후 6:0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은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6:0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준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문)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6:00 수·금·예배: 오후 7:3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금·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문) 주일 6부예배: 오후 10:00 수·금·예배: 오후 8:0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L.A.: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718)886-4400 Fax: (718)886-0074

선교 펴기

네팔

축복의 땅 '네팔'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이곳 네팔 소식 전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회 개척과 사역 Church Planting.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들을 찾아 방방곡곡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축복하며, 그곳에 있는 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카트만두분지를 넘어 강을 건너고 다시 2000m 산을 오르며, 다시 산을 내려오고 다시 또 산에 오르고 다왔다고 생각할 때쯤 차에서 내려 30분정도 걸어서 길 아래 마을을 내려갑니다.

말하지 않으면 찾기 힘든 그곳에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예배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열정만큼은 대단합니다. 차라리 없으면 더 좋은 듯 한 빛이 바라다 찢어지고 베풀어 살고 있을 것 같은 카페이 깔려있고 전등하나 없는 그곳에 문을 열어 빛이 들어 오게 하고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예배 때 느껴집니다. 작은 시골교회이지만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이 꽃 피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찾아간 교회에 장판과 전등 그리고 천장에 선풍기를 설치해주었습니다.

지난 6월 태국 방콕에서 동아시아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동아시아 선교대회를 통해 각 나라 많은 교회지도자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고, 기도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선교대회입니다. 이번 선교대회에 저희가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도 중 우리가 가는 비용으로 현지 네팔교회 사역자를 보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현지 사역자들을 만나 이번 선교대회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들을 전달하였지만 많은 현지 사역자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본인들은 헌신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대회동안 지내는 모든 경험은 우리가 지불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많은 지원자가 있었지만 결국 한명의 사역자만 방콕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다녀와서 다른 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보며 또한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나누는 것을 들으며 우리가 태국에 갔다 온 것보다 더 좋고 값진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 복음전도 Evangelism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누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의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현지교회는 전도의 열정으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

혜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1명의 사람이 5가정을 전도하면 네팔이 복음화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며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하였는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이 일을 통해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복음의 열정으로 서로 나눔과 섬김으로 교회와 개인이 성장과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전도를 통해 변화되고 있는 교회, 전도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칩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누



구나 해야 한다는 사명을 알게 되길 기도해봅니다.

■ 가난 퇴치 Advocacy.

네팔의 빈부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욱이 요즘 인도의 물가 상승과 인도의 경제 속국인 네팔은 더 큰 은혜의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현지교회는 전도의 열정으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

삶은 점점 고통가운데 있습니다. 직업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젊은 청년들, 가난을 견디지 못해 찾아오는 과부와 고아들 육체의 질병으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 청년들은 일을 하기 위해 일 자리를 찾고 있으며, 한국으로 가서 일을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는 외국에 근로자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네팔 해외근로자를 위한 기독교 단체에서 연결해주는 곳에 소개를 시켜주어 외국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저 저희는 통로 역할을 할뿐입니다. 이 일을 통해 가

난으로부터 해방되고 함께 복음으로 초대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야는 가장 낮은 카스트에 불가촉천민입니다. 남편도 일찍 죽고 없고 가난해서 못 가르친 아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근근이 일을 하고 있고 시집간 딸은 남편의 바람으로 쫓겨나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마야가 닭들을 분양받으며 행복해 합니다. 현지 가난한 자

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가난퇴치 운동, 시골의 목회자를 위해 염소를 분양했고 이제는 도시의 가난한 자들에게 계란을 전달하고 있고 더 불어 닭들을 분양 중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닭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소중한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사역 Clinic.: 티베트난민촌 의료진료

소문을 듣고 많은 환자들이 방문하고 치료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병이 호전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년 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은 발 복사뼈 있는 곳에 상처로 살이 썩어 커다란 동전보다 더 크게 살이 없어 그곳에 빠가 다 보이는데도 네팔병원에서는 방법이 없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치료 약 6개월이 지나서 지금 새살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본인도 놀라는 눈치입니다. 병원에 가셔도 못 고쳤는데 조그마한 방안에서 일어나는 주의 기적입니다.

의료사역을 위해서 많은 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늘 계속됩니다. 약이 떨어질 때쯤 되면 남은 약이 생겼다고 저희에게 약이 필요함을 알고 연락을 주십니다. 지난 시간들도 많은 네팔의 지방을 다니면서 사역을 생각 하면서 행복한 결심으로 인해 한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손에는 약을 들고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 교육사역 Education

책을 읽어야 생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꿈이라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공부방에 많은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고 공부하며,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예쁜 그림이 그려진 책을 보면서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폭넓은 생각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작지만 1호 도서관과 공부방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그로인해 배우지 못한 교인들의 희망은 일 자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한국에 일하러가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볼 때마다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청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25-30명 정도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위해 오디오시일이 필요합니다. 기도 해주십시오.

■ 우리들의 기도제목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만년 사역자가 열심히 주를 섬기도록

-가난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가족분양이 더욱 잘되도록

-주일 학교 후원과 한국어 수업의 기자재를 위해서

-가족들의 건강과, 2세를 위해 저희 다음 카페입니다.

http://cafe.daum.net/gpeople1004

E-mail: gpeople1004@hotmail.com

(이훈우/아희 선교사)

십자말 • Cross Word (9)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가로 푸는 열쇠>

1. 기랴야림 근방에 거주하는 유다지파 자손(삼상7:1).
3. 여호아다의 아들이요 다윗의 근위대장으로 세 용사 중 한 사람(왕상2:30).
5. 길르앗인 바실래의 수종자이거나 아들인 듯 한데 그가 다윗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서 돌아왔다(삼하19:37).
7. 운수가 좋음(행26:2).
9. 이스라엘의 제1대 사사(수3:9).
11. 먼저 도착함(전9:11).
13. 마리아의 언니, 나사로의 누나(눅10:41).
15. 원통하거나 뉘우침이 있을 때 한숨짓는 탄식(잠5:11).
16. 점을 치는 술법(겔12:24).
17. 남의 집에서 천한 일에 종사하는 여자(눅1:48).
19. 사방의 경계(렘15:13).
21. 남편의 옛스러운 말(겔16:32).
23. 무슨 뜻을 나타내는 표(출13:9).
25. 대학 졸업생의 칭호(느8:5).
27. 내소와 외소(왕상6:29).
28. 소아시아 동남 지중해 동북 안에 있는 한 도시며, 수부는 바울의 고향 다소다(갈1:21).

<세로 푸는 열쇠>

1. 아라비아의 왕, 바울을 잡으려 함(고후11:32).
2. 한 느디뎨 사람(느7:46).
3. 그들의 아버지(대상4:4).
4. 시므이의 아들(대상8:19).
6. 각각사람인데 야수세로 왕의 총리대신 하만의 부친이다(에3:1).
8. 배가 감(눅8:23).
10. 소아시아 서남해 중에 있는 작은 섬(행27:7).
12. 착실하고 어진 종(눅19:17).
13. 요술쟁이(사8:19).
14. 많은 닭 가운데 학이 한 마리 있다는 뜻. 평범한 사람 중에 뛰어난 인물이 끼어있음을 뜻함(고사성어).
18. 바벨론의 한 동네 이름(렘31:39).
20. 서로 기술의 낮고 못함을 견주어 다름(딤후2:5).
21. 하나님의 법계를 모셔두었던 가장 거룩한 곳(대하3:10).
22. 한 쪽이 기울어진 길(삼상9:11).
24. 다윗왕 때 에브라임 자손의 장관(대상27:20).
26. 남자. 사나이(민31:35).

십자말 정답

한	니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다	사

나노 기술의 놀라운 칼슘흡수

BONSTRONG

인제대학교 나노 공학부 공동 기술개발
Bonstrong 이 약속드리는 골다공증 없는 세상

INHIS Inc
POWERBOLIC USA
laboratores Inc
Made in U S A

동부: 737-570-3611
서부: 310-903-1792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매세일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정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 &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BURN + PRINT

전도용 멀티슈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The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SEVIS I-20 FORM 발행

- 학위: 학사, 석사, 박사학위
- 전공: 신학, 기독교교육학, 유아교육학, 목회상담학, 심리학, 선교학, 세계문화학, 문예창작학
- 특전: 월-금 오전, 오후 Class, 다양한 세부전공 선택, 윌리엄캐리대학 복수학위 수여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TEL (213)736-6500
FAX.(213)735-6504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42)

미국사회 일원으로서의 미래적 과제



정신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대학교 선교사)

오늘 이야기부터는 우리 한인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들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논의하려고 하는 우리 한인교회 기독교 교육의 과제는 “미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한인교회는 미국사회 전반에 대해 교육적 소명을 가지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한인교회의 사역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사회 전체를 향한 사역보다는 우리 한인공동체와 한인 신앙공동체를 섬기는데 더 많은 역점을 두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우리 한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민을 와서 이 땅에서 그 핏줄은 이민의 삶을 살아갈 무렵부터, 우리 한인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과

깊이가 쌓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인교회가 섬겨온 한인들이 하나의 작은 이민족 집단이 아닌 미국사회의 당당한 한 구성원으로서 인식되면서, 한인교회 또한 한 이민족의 삶과 신앙을 감당하는 역할로서 뿐만 아니라, 미국교회 전반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충분한 존재로 기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간 한인교회의 사역들이 일구어낸 아름다운 열매들에 더하여, 이제 우리 한인교회는 한인공동체와 한인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들이 밭 딛고 살아가는 미국사회 전반을 섬겨야 하는 거룩한 책임과 소명을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한인교회가 우리 한인공

실천기 위한 더 많은 고민과 노력들이 요구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 과제를 함께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함께 출발하면 합니다. 이는 이러한 책임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작은 시작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 작은 발걸음을 함께 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오늘 이야기부터 우리 한인교회가 미국 사회전반을 섬길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한인교회가 이러한 과제를 진행하는 “전반적인” 사역에 대한 것을 모두 논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미국사회 전반에 대해 교육적 소명과 책임 감당 인종적 화해 · 공동체의식 실천으로 신본주의 회귀

함께 호흡하며 위로하고 힘을 주며, 복음으로 그들의 삶과 신앙적 필요를 섬기기 위해 대동되었습니다. 이에 한인 교회들에게 있어서 한인공동체와 그 신앙공동체의 삶과 신앙을 위한 사역을 우선시 해 온 것은 우리 한인교회와 그 사역의 발생 및 존재 이유와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한인교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교회를 향해 주신 거룩한 소명인 줄 알고 성심소로 이를 감당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교회는 이를 통해 많은 사역의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미국 내 한인들의 기독교인 비율(현재는 많이 감소한 추세지만 십여년 전만 해도 75%까지 이른다는 연구보고가 있었을 정도로) 모국의 기독교인 비율(20-25%)을 훨씬 웃돌 만큼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인교회는 우리 한인들에게 신앙생활의 구성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정신적 안정, 사회적 교통, 및 교육의 기관으로서 자리매김 되어 왔습니다. 그간 선배 사역자님들의 헌신과 노고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간 우리 한인교회가 중심으로 헌신하여 한인공동체와 한인 신앙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섬겨온 만큼, 이제는 한인교회의 역량자체가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갈 정도로 성장했고 내적인

동체가 한 구성원으로서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미국사회 전반을 섬기는 소명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그 대지에 동의를 한다고 해도, 사실 이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엄두가 잘 나지 않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여전히 우리 한인들을 집중하여 섬기기에 도 수많은 고초와 힘겨움들이 존재하기에, 이러한 과제를 고민하고 그 실천방안들을 고민하고 또 실제로 실천하는 일이 멀게만 느껴지고 또 하나의 부담으로만 느껴지는 양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소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일은 우리 한인공동체를 섬기는 또 다른 한 방법임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사회 전반을 위한 소명과 책임이란 결국 그 안에서 하나의 구성원을 이루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인공동체를 위한 소명과 책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그들”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그들과 우리”가 모두 포함된 하나의 “우리”를 위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사회 전반을 향한 섬김의 소명과 책임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안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필요하며 사실 앞으로는 더 나아가 이 소명과 책임을

지금 한인교회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에서는 그 “교육적” 측면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국사회 전반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우리 한인교회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몇 가지 예들입니다. 그 한 예로, 우리 한인교회는 우리 한인들이 미국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서 경험해온 것들과 그들 통해 얻은 통찰들을 토대로, 미국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문제와 이에 미국사회의 시급한 화두인 인종적 화해의 과제를 미국 사회전반에 교육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족으로서 우리 한인들이 실제로 경험해온 차별들, 흑인들과의 갈등 및 화해의 노력들, 그리고 미국인들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인디언 원주민들을 위한 선교의 사역들은 미국사회 전반을 향한 기독교 교육의 훌륭한 자료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한인교회의 미래적 과제들 중 하나로서 미국 사회 전반을 향한 그리고 그 교육을 위한 소명과 책임을 인식해야 함을 주장하고, 그 실천적 예들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부터는 소개한 각 예들에 대한 자세한 논의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월 중말심판의 인식(겔10:1-22)찬347장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습니다(18).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날 증거로서 비극 중 비극입니다. 이가봇의 슬픈 일이 되풀이된 것입니다(삼상4:21). 여기서 우리는 심판에 관한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심판은 보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1-2). 바퀴 속에서 “불을 취하라”는 명령이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의의 심판이 틀림없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13-15). 구약시대일지라도 심판하는 자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는 네 생물의 모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유일한 구원주요, 심판주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셋째, 일사분란한 순종을 따른 심판이었습니다. 심판하는 그룹들은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라”(21-22)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중말심판의 심각성을 느끼며 복음을 힘껏 전해야 합니다.

화 교만을 경계하는 가정(겔11:1-13)찬217장

예루살렘 심판 직전에 일어난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계락을 꾸민 교만한 지도자들의 멸망을 예언 합니다. 그 계락을 아신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5,7-11).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신 최후통첩의 메시지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옳은데, 강퍽한 마음을 가진 그

들은 백성의 마음을 이간질했습니다.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어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지도자, 섬기는 지도자를 구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의 축자영감설이 점점 무시되는 때에 더욱 더 성경에 착념해 온갖 교만의 괴물과 맞서 겸손으로 세상을 정복하십시오(딤후6:3-5).

수 하나님이 주신 소망(겔11:14-25)찬89장

이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론의 무자비한 압제 아래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로 성소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억압 아래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그들 속에 거하시는 성소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흠어진 그들을 모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17). 하나님이 친히 불러 모아 그

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젖과 꿀을 먹는 교회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소망입니다. 새 신(new Spirit)을 보내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고 일치하는 마음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민족적 이스라엘은 그런 은혜를 잠깐 받았을 뿐이지 진정한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목 드러난 의(겔12:1-16)찬262장

행구를 옮기는 행동을 통해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는 의를 반드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의가 드러났습니까? 첫째, 회개의 요구 속에 드러났습니다. 한 실물교육으로 그들을 자극시켜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의 앞에 두렵고 정직히 선 자의 반응입니다. 둘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16). 정황을 바라본 백성들의 양

심적 고백에서 하나님의 의가 표현된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라 해도 하나님은 구원 받는 자는 믿음의 의를, 정죄 받는 자는 심판의 의를 드러내 고야 마십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는 복음의 의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라는 가정이 됩니다(행20:21).

금 목시를 무시한 시대(겔12:17-28)찬318장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심판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그보다 목시(revelation)에 대한 그릇된 태도가 더 큰 원인입니다. 본문에는 그런 태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떨면서 네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몸을 마시라”(18)는 표징은 목시에 대한 무관심을 자극시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목시에 대한 기민성이 없는 심령은 타락한 자입니다. 목시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21-23)은 하나

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농담이나 장난거리로 생각하는 마음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목시의 성취를 무시하는 행위(26) 역시 모두 다 심판을 자처하는 행위입니다. 목시는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에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왜곡시키는 것은 풍랑 속의 나침반을 잃은 배와 같이 좌초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착념하고 그의 빛 아래서 자기 빛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사119:105).

토 거짓선지자에 대한 경고(겔13:1-16)찬184장

인간역사는 “말들의 전쟁”(the war of words)입니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혼합돼 범벅이 돼버렸습니다. 본문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듣기 좋도록 자기 마음대로(2-3) 행하는 예언입니다(16). 더욱이 여호와께서 보내지 않은 자칭 선지자의 평안하다는 예언입니다(6). 부르심이 분명치 않은 자는 허탄한 것과 접계를 보고 거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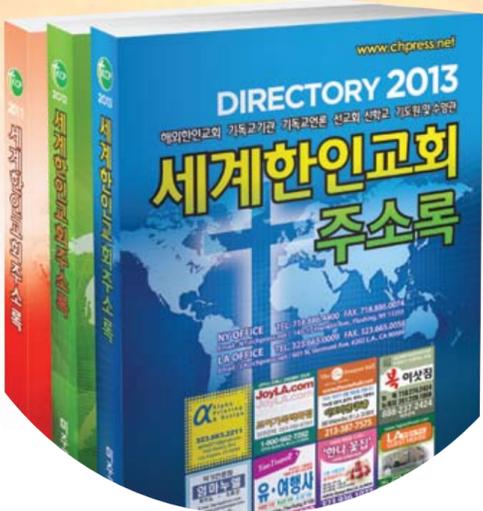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후한 무덤처럼 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에게는 폭우와 우박덩이와 폭풍이 쏟아지는 심판이 임합니다(11). 우리의 모세와 선지자인 “성경”을 날마다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여 계시의 빛 아래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152-525-7767, HP: (012)1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2)1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4-5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062)264-3181~3, (82)2-2646-3184 서울시 광진구 광성동 520 (158-808)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9: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교회 담임목사: 장창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8:00(매일) 새벽기도회: 오전 8: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교육부) VIA DEI QUINTILI 32-30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622-3 (158-053)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00 (정미회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82)2-842-1968, 새벽(011)82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안남1동 63-3, (150-051)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89,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330-5 (154-26호)
수령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1(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인창동 137 번지	시은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곡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82)2-842-1968, 새벽(011)82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안남1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330-5 (154-26호)	안양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산구 이촌동 2-27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8: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봉곡동 415 www.yango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인명선교회 부흥부 신약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요니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서울특별시 용인시 이촌동 302-67 (140-031)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성경 강좌: 오후 7:00 금요기도회: 매일 새벽 4:30(50분) 금요기도회: 매일 새벽 4:30, 4:45 금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9:30 www.pcco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주일기도회: 저녁 9:00 714종교개혁 기념 예배: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rn@hanr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4년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마감 임박

리스팅 9월말, 광고 10월초 마감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매년 발행하는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이 2014년도 판 출간을 앞두고 리스팅과 광고디자인 작업 중에 있다. “2014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은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미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의 주소가 수록돼 있다. 총 75개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및 담임목사의 연락처를 게재한다. 또 교회가 속한 교단과 웹사이트 주소도 수록돼 있다. 이외에 선교단체 및 신학교 리스팅도 포함된다. 명실공히 전 세계 해외 한인교회와 한인교계의 주소를 담고 있는 본 주소록은 각 교회와 신학교, 기독단체들의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 “2014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리스팅 편집마감은 9월말이며 광고마감은 10월초까지 가능하다. 한인교회와 기독단체, 신학교들의 리스팅을 9월말까지 본사로 보내면 된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3년 9월 30일 / 광고 접수마감 2013년 10월 12일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유 료 광 고 안 내	тол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전면 1/8	15.5 × 2.8cm	\$250.00		
	7.7cm × 5.8cm			
тол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 료 리 스 팅 신 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미주기아대책(KAFHI)은 영적, 육체적 굶주림이 공존하는 지역에 선교사(Hunger Corps, 기아봉사단)를 파송합니다



2003년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KAFHI/미주기아대책)는 설립과 동시에 첫 선교사, 백신종 선교사 가족을Seed 선교회와 함께 가난한 불교의 나라, 캄보디아 캄뎡에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뎡은 수도 프놈펜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입니다. 10년전 캄보디아는 왕당파와 수상파의 내전 말미라서 치안은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하물며 수도 프놈펜에서조차 한인선교사님이 선교비를 찾아 나오다가 망치로 머리를 맞고 노상강도를 당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 가족은 겨울 돌아 지난 아이를 데리고캄뎡에 들어가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역은 메콩강 한 복판, 쪼소돈 섬에 거주하며 이슬람을 믿는 소수민족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을 건축하고, 아이들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의 눈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헤메고 있는 고아와 에이즈 고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에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편지에 중보기도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고아원을 짓고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고...그렇게 별빛고아원이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 생겼습니다.

본부에서 지난 2012년 겨울에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과 주일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난 후 잠시 휴식을 취하려 하는데 아이들이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북투기(오토바이를 개조한 탈것)를 타고 한 시간 가량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그곳은 메콩강 한 가운데 있는 고무농장의 노동자 집단거주지였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열고 찬양과 율동, 성경암송, 놀이, 간식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인데... 이제 겨우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아이들인데... 그냥 주일 오후에 개인적인 자유를 누려도 뭐라 할 사람도 없는데...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자신들 보다 더 가난한 아이들을 찾아가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 이 복음을 듣고 변화한 아이들이 남길 간증을 상상해 봅니다. “나의 어린 시절에 우리 마을엔 수염이 턱수룩한 한 아저씨가 찾아왔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 아무 희망없이 살던 우리에게 그분이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는 희망과 기쁨이 되었다. 우리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었던 거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거란다.”

한 선교사님 가정의 현신이 다음 선교사에게로, 또 고아원 아이들에게로, 그리고 다시 고무농장의 빈민 어린이에게로 흘러가며 변화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강조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뎀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파송된 KAFHI의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의 영적 육체적 굶주림의 종식을 위해 복음과 빵을 전하고 있습니다.



KAFHI는 선교훈련원을 통해 단기선교훈련 및 파송, 중 장기 선교사를 훈련 파송하는 NGO선교기구입니다. (선교훈련원장 백신종 선교사)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 (Korean American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KAFHI)

KAFHI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www.fh.org, kafi@fh.org, shchung@fh.org, 847-296-4555, 703-473-4696

명예이사장 및 설립자 이원상 목사
 이사장 배현찬 목사 부이사장 이종관 목사 노진준 목사 이순근 목사 최훈성 집사
 이 사 권석찬 김광태 김세웅 김승의 노승환 신구용 신진용 안인권 이계준 이병환 이예실 이영섭
 이현예 임철성 장원일 장재욱 정세훈 조용수 전용태 자기영 홍선희
 회 장 김형균 목사
 사무국장 정승호 목사 훈련원장 백신종 선교사 CFCT 간사 김은실 이 에스더 코디네이터 노희준 장로 신구용 장로